

월간

우리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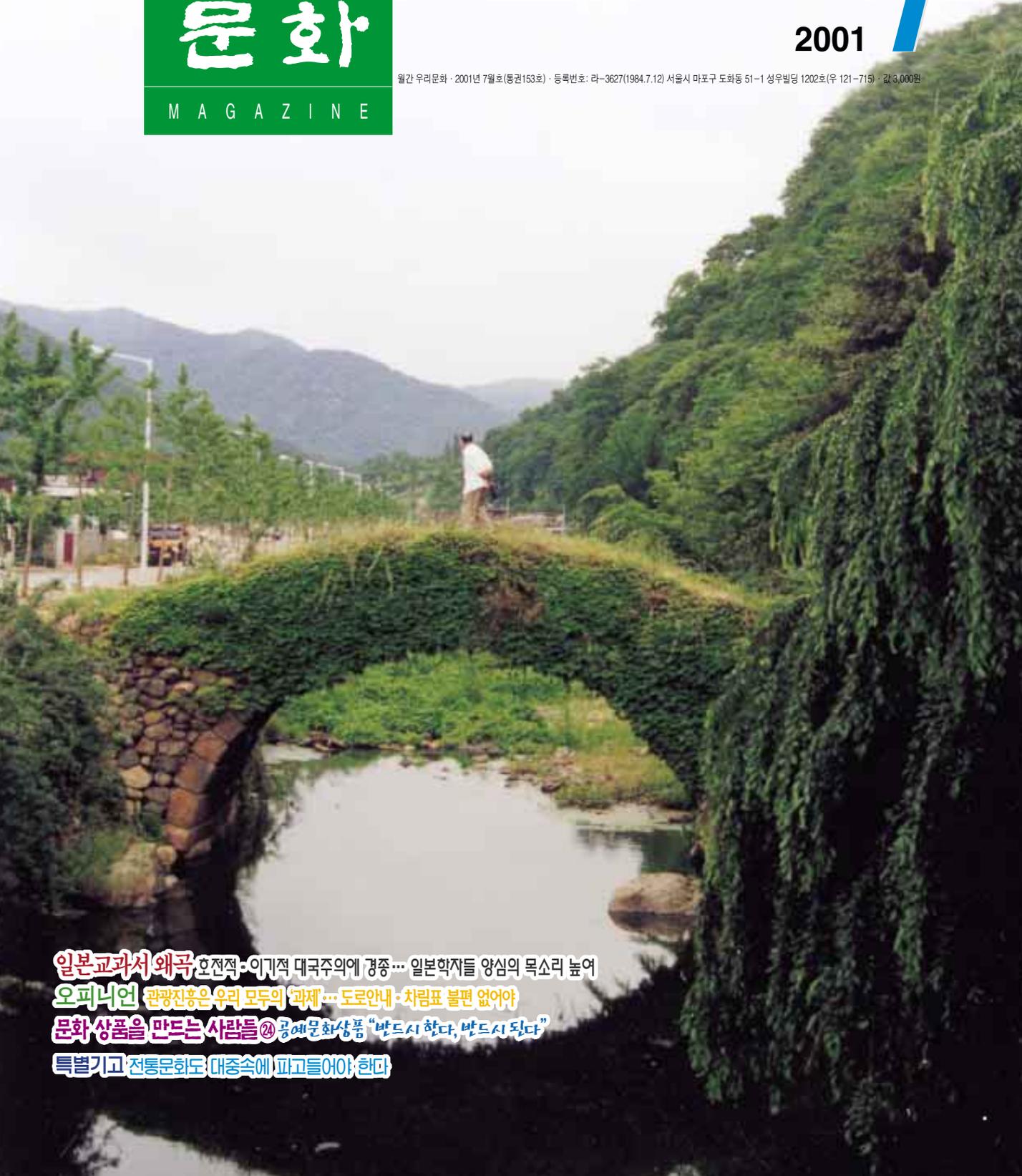
M A G A Z I N E



2001

7

월간 우리문화 · 2001년 7월호(통권153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일본교과서 왜곡 오전적·이기적 대국주의에 경종... 일본학자들 양심의 목소리 높여
오피니언 관광진흥은 우리 모두의 과제... 도로안내·차림표 불편 없어야
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 **공예문화상품** "받드시 한다, 받드시 된다"
특별기고 전통문화도 대중속에 파고들어야 한다



영산 만인교.
이 다리는 조선조 정조4년(1780) 축조된 것으로
보물 제564호로 지정된 석흥교(돌무지개다리)이다.
1892년 중수하였으며 총 길이는 13m이다.

2001년 7월호(제15권 7호 통권 153호) 등록 / 라-3627(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경 편집인 / 李秀洪 사무총장 / 安辰洙 편집주간 / 柳長洙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1년 7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차례

| | | |
|-------------------------------|---|---------------------------|
| 4 ◆ 권두칼럼 | 통일문화 선두주자 되는 길 | 최용문 |
| 6 ◆ 특별기고 | 전통문화도 대중속에 파고들어야 한다 | 정중헌 |
| 8 ◆ 우리문화논단 | 21세기엔 문화원이 향토문화콘텐츠 제작 중심기관이 되어야 한다 | 강진갑 |
| 10 ◆ 제언 | 전통공예품 유통진출 전망 밝다! | 이질용 |
| 12 ◆ 오피니언 | 한리산 정상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파노라마 | 제주문화원 |
| 16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㉔ | 공예문화상품 “반드시 한다, 반드시 된다” - 오프라인을 기반으로한 프랜차이즈 공예문화상품기업 크리에이티브42 최연수 대표 | 강민철 |
| 19 ◆ 행사 | “사무국장님들이 단비 물고 왔군요” | 강민철 |
| 27 ◆ 이달의 문화인물 | 조선 전기 강호문학의 선구자 이현보 | 편집부 |
| 28 ◆ 내고장 명소 | 伴 鷗 亭 | 파주문화원 |
| 30 ◆ 내고장 설화 | 과부의 시로 벼슬한 선비 | 김병학 |
| 32 ◆ 기행문 |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가교 (상) | 정갑섭 |
| 37 ◆ 일본역사교과서왜곡 | 호전적·이기적 대국주의에 경종... 일본학자들 양심의 목소리 높아 | 류장수 |
| 43 ◆ 2001, 지역문화의 해 뉴스 파일 | 섬주민·관광객 포괄한 문화시책 개발해야 제2회 단오한마당축제를 다녀와서 | 강민철 '2001, 지역문화의해' 사무국 |
| 51 ◆ 오피니언 | 관광진흥은 우리 모두의 '과제' ... 도로안내·차량표 불편 없어야 | 박양우 |
| 52 ◆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최우수상 논문 | 한양의 용문화 오방토룡제에 대한 연구 ㉔ | 김영섭 |
| 60 ◆ 전통의 멋과 맛 | 은장도 | 편집부 |
| 62 ◆ 세시풍속 | 流頭와 三伏 | 박후식 |
| 64 ◆ 민속 | 밀양 박씨 집안서 '바구보살' 모시며 福樂빌어 | 태안문화원 |
| 69 ◆ 문화원 소식 | '문화원 국고지원 강력 반대' 등 | 편집부 |
| 76 ◆ 신간안내 |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등 | 편집부 |
| 80 ◆ 갤러리·과천문화원 '선백화' 미술전시회 | "인사동에서 평가받고 싶었다" | 전명찬 |



통일문화 선두주자 되는 길

우리가 그리도 모질게 살아왔던 20세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이데올로기로 남과 북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뼈아픈 동족상잔과 만연한 부정부패에 또한 기나긴 군사독재와 IMF환란,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문화의 세기 · 지역문화의 해에 의무감 느껴

세기는 바뀌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외치면서 희망찬 새 삶을 위해 온 국민이 정열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문화관광부)에서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꽃 피우기 위해 문화를 통한 화합으로 형성되는 성숙한 민족공동체와 문화적 독창성, 보편성의 조화로 구현되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는 창조적 문화복지 국가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청사진을 그려서 발표하였다.

그 일환으로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하여 그 동안 중앙에 집중되어온 문화의 치중현상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자긍심과 향토애를 갖고 지역문화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년이 흐른 오늘에 그 성과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솔직히 피부로 느낌이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란 무엇인가? '인류가 삶을 이끌어 온 발자취'라고 말한다면 그 발자취를 보존·계승·발전시키는 임무를 갖는 지방문화원으로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방문화원'을 놓고 관할권(설립권 이양 등) 싸움이 고작이란 현실이 우리를 개탄케 한다. 지방문화원은 중앙정부차원의 사업(문화)이지 결코 한정된 지방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통일문화사업에 국운을 걸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최 응 문
속초문화원장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방문화원'을 놓고 관할권 싸움이 고작이란 현실이 우리를 개탄케 한다. 지방문화원은 중앙정부차원의 사업이지 결코 한정된 지방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통일문화사업에 국운을 걸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바로 통일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진전되고 있다. 이 통일을 위한 문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이란 대승적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바로 통일 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진전되고 있다.

이 통일을 위한 문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이란 대승적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문화를 통해 남북간 통합 이룩해야

나는 휴전선 가장 가까이에, 또한 6·25 피난민들이 가장 밀집하여 있는 정착촌 소위 '아바이마을'의 속초에서 살고 있는 피난민의 한 사람이다.

그들(피난민들)과 같이 생활문화를 영위하고 있기에 더욱 '통일문화'에 애착이 가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상호문화교류를 우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해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로 상호이해와 진정한 마음의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의 상이한 문화요소들간의 대립과 상호 모순적인 측면들의 충돌은 자칫 혼란과 침체한 갈등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남과 충돌'을 부정적이고 상충적인 것으로만 볼 것은 결코 아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오늘의 반세기란 시간에 그 뿌리째 흔들려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배달민족의 삶을 이끌어 온 5천년의 발자취, 전통문화가 남과 북이 그 얼마간 각기 다른 체제에서 살아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층문화의 원형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또한 대비하는 자세에서 내적으로 이제 안주하는 문화에서 적극적인 재창조의 길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체계적인 문화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종합문화정보 체계를 완성해 창조적 지식기반의 토대 위에 고유문화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특성 바탕으로 삶의 질 개선해 나가야

우리는 앞으로 더욱 문화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공동체를 실현하여 중앙집중적인 문화현상을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체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지역문화는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과정이며 어디까지나 지역개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역문화는 문화적 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확한 문화의 재조명을 요구한다. 다시말해 전통적인 가치관에 근원하여 문화정립이 선행될 때 그 지역문화의 기틀도 더욱 확고해 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통일문화의 선두주자가 되자. 

전통문화도 대중속에 파고들어야 한다

월간 '우리문화' 6월호를 보다가 '전통문화도 엔터테인먼트로 가공해야'라는 기사가 눈에 번쩍 띄었다. 개인 인터넷방송국을 만들어 주는 채널인의 김정기 대표를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특히 '동영상과 전통문화의 접목 필요성' 제기에 무릎을 쳤다. 평소 필자의 생각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통문화가 누구에 의해, 누구를 대상으로 발전하고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여러모로 고민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앞으로 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로 가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신의 포부도 곁들였다. "항상 숨어있어야 하고 항상 품격 있어야 하는 전통문화가 아닌,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 바꾸는데 동영상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싶다."

김 대표의 말처럼 전통문화도 엔터테인먼트로 가공하고 산업화하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아무리 품격높은 전통예술이라도 대중속에 파고들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 지역의 고유한 민속이나 전통문화도 마찬가지다.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전국 각 지역마다 축제가 열리고 있다. 전통예술이나 민속놀이가 대중을 이루는 축제들은 시기와 이름만 다를 뿐 그게 그것 같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대중과도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접하고 재미있어야... 엔터테인먼트로 가공 필요

올해 충남 당진에서 제1회 면천진달래축제를 기획해 주목을 받은 이인화 교사는 "민속이란 거기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면 그 가치는 깨지고 마는 것"이라며 "지금의 민속행사를 보면 속에 든 의미는 간데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수만 늘었지 형식에 흐르고 있는 축제문화의 실상을 드러낸 신랄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정 중 현
조선일보 논설위원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

정부도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고 지역문화 특성화·활성화에 신경쓰고 있다. 추진위원들이 매일 지역문화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역축제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원과 일정으로 지역마다 축제의 특성을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인 측면도 없지 않다.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구조 확립이 필수적이거나 이제는 관광이나 산업과 연결시키는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종합기획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통예술과 지역 고유의 민속을 아우르는 전통문화는 원형의 보존과 전승이 중요하지만 축제의 메인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관중이 즐기고 참여하는 엔터테인먼트로 가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엔터테인먼트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삶의 본질중의 하나로 오락만이 아니라 의식주, 레저관광, 예술과 대중문화, 각종 미디어, 문화산업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창의력이 필수다.

창의력의 요소는 다양성, 개방성, 차별성이다. 또한 전통문화를 미디어나 레저관광등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재미다.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 관중에게 최대한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야 한다.

재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양한 요소를 가미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축제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재원 못지않게 마케팅과 피드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오늘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차별화다. 브랜드에 의한 차별화, 내용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의한 차별화가 그것이다.

축제는 테마도 독특해야지만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하는데 전통문화를 앞세운 우리의 지역축제는 내용이 천편일률적인데다 행위자와 수용자가 따로 놀아 재미도 적고 활성화도 안되고 있다. 특히 풍물

놀이는 지방마다 특색이 있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식상할 정도다.

이런 점에서 복제주군이 정월대보름 쥐불놀이를 축제화한 들불축제는 규모나 참여도면에서 성공가능성을 보인 예로 꼽을만 하다.

얼마든지 국악도 인기프로그램으로 만들수 있어

축제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살려내려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TV에서 국악이나 전통춤, 민속은 푸대접한다.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심야나 새벽시간에 구색으로 끼워넣는게 고작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시켜 보게 만들려는 방송사측의 의지나 제작진의 성의 부족이다. 마음만 먹으면 국악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창극은 공만 들인다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장르임에도 개발에 무관심하다. 최근 공영방송의 한 채널이 젊은이들에게 전통공예를 익히는 프로그램을 내고 있는데, 교육적 내용에 오락성을 가미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몇해전 삼성문화재단은 '한국문화의 향기'라는 CD-롬을 만들어 전통문화를 새롭게 알리는데 앞장선 일이 있다.

380여개에 이르는 사진자료와 오디오, 동영상, 텍스트 등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한 이 자료집은 영어와 일어로도 제작돼 해외에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일조를 했다.

채널인의 김정기 대표가 한국 전통문화를 동영상으로 알리는 인터넷 방송을 하겠다는 것도 새로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결론은 '전통문화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야 대중속에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엔 문화원이 향토문화콘텐츠 제작 중심기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는 없었다. 지식의 증가, 종이 없는 사무실, 사무실 없는 기업, 멀티미디어의 보편화, 가상 현실의 등장 등 정보화의 큰 물결은 이미 보통 사람도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은 정보의 디지털화이다.

디지털 정보의 특성은 첫째, 압축기술의 발달로 대용량의 정보 저장이 쉬워지고, 그 정보를 원본의 손상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전송해 준다. 그래서 동영상, 사진, 그림, 심지어 소리까지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전송해 준다. 둘째, 여러 유형의 정보가 하나의 통일된 형식, 즉 기호로 표현된다. 그래서 문자, 소리, 사진, 동영상을 한 장소에서 편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교류가 가능해진 것이다. 컴퓨터가 인터넷과 결합되고 디지털화한 정보를 유통시키면서 정보화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인터넷은 컴퓨터를 통하여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전달하는 컴퓨터 통신의 하나이다. 인터넷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의 각 컴퓨터에 담겨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획득하게도 해주고 전달도 해주는 '정보의 고속도로'이다. 그런데 이들 정보들이 디지털화 되었기에 대용량의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컴퓨터에 탑재된 정보들을 짧은 시간에 검색하여 원형 그대로 획득하고, 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 향토지로 전환 필요... 문화원은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이제 인터넷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를 만나고 있다. 즉 우리 일상 생활 공간인 오프 라인 공간보다, 인터넷상의 공간인 온 라인 공간에서 문화를 접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향후 오프 라인상의 문화보다는 온 라



강진갑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인상의 문화의 비중이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인터넷 자체가 아니라, 인터넷에 수록된 정보 내용, 즉 콘텐츠이다. 인터넷을 TV수상기에 비교한다면 콘텐츠는 TV 방송 프로그램이다.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프로그램이 없다면 TV 수상기는 쇠더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문화원이 향토문화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선 향토문화 자원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원의 주요한 사업 중 하나인 향토지 편찬을 책으로만 펴내기보다는 인터넷에 탑재하는 인터넷 향토지 편찬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향토 문화 자원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만화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 애니메이션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지역별로 청소년들을 위한 게임 경연대회 개최도 고려할 만하다.

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문화원 안팎으로부터 문화원 실정을 모르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할 것이다. 필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내 문화원 지원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문화원 실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중심기관이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도 문화원의 그러한 역할을 지속되고 증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이 시점에서 문화원이 인터넷에 탑재된 콘텐츠를 외면한다면 문화원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존립 근거까지 위협받을 것이다

현재 한국정신문화원에서 향토문화를 인터넷에 탑재한, 거대한 향토문화전자 사전에 기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이 각 지방의 향토문화 전자사전 편찬의 중심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의 계획대로 향토문화 전자사전이 추진된다면, 문화원은 곧 바로 향토문화 자원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제 문화원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추진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부딪치는 난관은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이다. 문화원 식구들이 현재의 여건이 불비하다고 콘텐츠 제작과 유통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평생 뱃사공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가족의 생계를 이어온 나루터에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사공 노릇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손놓고,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투자 늘려야 할 마당에 보조금 중단 이라니...

문화원이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원 조직과 인적 구성은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변화를 현재의 문화원 식구들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임직원을 비롯한 문화원 가족은 정보화시대에 발 맞추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원을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문화원 활동에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화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문화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는 커녕,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던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마저 내년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재론하건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지방문화원은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중심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원의 일대 변혁이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

전통공예품 유럽진출 전망 밝다!

2001년 4월 27일 ~ 5월 8일, 5월19일~5.28 프랑스 파리와 포도주
의 명산지인 보르도에서 국제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이곳에 나전칠
기, 한지공예 등 우리 고유 문화유산이 가득 담긴 전통공예품 1500여 점
을 가지고 참가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지면에 담아 먼 훗날 우리 공예품이
유럽에서 얼마나 크게 호응을 받았는가를 남기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기간 중 자크시라크(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보르도 전시관을 1시간여 다녀가는 바람에 한층더 전시회 자체가 돋보였
으며 그와 포옹도 하고 박수도 치며 10여장 넘게 사진까지 촬영할 수 있는
영예(?)를 안게 되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추억거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유럽의 중립 국가로서 아직까지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곳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우리가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베트남, 중
국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수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지식층들은 한국에 대한 홍보를 조직적이고 체
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돌출적이며 소규모적이며 간접적으로만 개최하는 바
람에 우리를 제대로 알릴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랑스는 551,000km²의 면적에 인구는 58,722,000명인 유럽의 중심 국
가로서 동유럽과 아프리카대륙까지가 프랑스의 문화영향권이며 4계절이
뚜렷하고 도심은 대체로 온난하며 비가 자주 내리고 해외 용품에 관심이 많
고 수집을 즐기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번 국제박람회를 통해 그들의 공예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볼수 있었다.
프랑스인들은 이집트 문화에 상당히 심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앉아서 치는
북, 인형, 괴상한 인물상, 탈, 주술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선호하는 데서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이 아프리카 문화였다.

예를들어 얼룩말 무늬의 스카프, 숄, 손수건, 핸드백, 심지어 구두, 액세
서리까지 같은 무늬를 하고 다니는가 하면 아프리카 여인들의 나신, 성기가
뚜렷이 돌출된 목각인형들을 많이 구입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었다.



이 철 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
· 문화관광부 문화재 전문위원



△ 파리전시관에 진열한 한국의 문화상품들



△ 자크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방문하자 인파가 몰려들어 전시회가 한층 더 돋보였다.

한국에서 가지고 간 대나무, 참빗, 열레빗, 골무, 징, 투박한 옹기, 연, 은은한 소리가 나는 소형 종, 자개(괘각)공예 등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해 갔으며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느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을 베트남이나 중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번 공예 전시회는 커다란 충격이자 우리 고유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일부 교포들과 입양아들이 '이것이 한국물건이냐!'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루만지는 것을 보고 나 자신도 가슴속으로 격한 슬픔을 가져야만 했다.

'우리 공예품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민족!'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무어라 표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의 유럽진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협조했지 우리 공예에 대해선 너무나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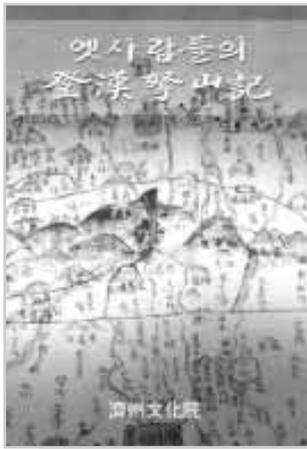
우리 공예품의 프랑스 진출 전망은 매우 밝고 희망적이다. 내용을 추려보면 우선 프랑스 국민들이 우리 공예품에 대해 매우 좋아라하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파리에 자리잡고 있는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과 그안에 소장 전시되고 있는 나전칠기, 민화, 목물, 풍속물들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프랑스인들은 우리 전통과 가까이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전시 판매된 46종 1500여 점의 공예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고 구매하면서 보여준 그들의 표정과 마음씨등은 우리 고유문화유산이 가득 담긴 민족공예품들이 프랑스를 통해 유럽전역에 날개돋친 듯이 팔려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자 국내에서만 맴돌고 있는 공예 문화산업에 큰 돌파구가 될 것이란 예상이 허구가 아님을 시사해 준다.

이번 전시회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문화관광부 유병한 문화상품과장님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 현지의 한·불 전통문화교류협회 프랑스측 주민총 회장의 눈부신 역할이 없었더라면 행사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본다. 이번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도 좋은 명품을 가지고 세계만방에 우리 공예품을 제대로 알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자 꿈이다.☞

한라산 정상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파노라마

제주문화원 제공



제주문화원이 펴낸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임제·김상헌·김치·이형상·이원조·최익현·이은상 등 조선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명사들의 한라산 등반기가 실려있다. 이 중에는 독일인으로서 처음으로 한라산을 오른 지그프리드 켄테의 한라산 등반 경위와 감흥도 잘 나타나 있다. 이를 5월호에 이어 게재한다

‘켄테박사의 한라산등반기’ 5월호에 이어 계속

비슷한 여건에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제주의 한라산처럼 펼쳐지는 곳은 분명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한라산은 바다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대륙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아주 가파르고 끝 없는 해수면 위로 높이 치솟아 있기 때문에, 그 정상에 서면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고산지대에서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라도 시야가 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무수한 기압계 두개를 주의 깊게 이용함으로써, 나는 가장 가파른 곳에 있는 최외각 분화구의 가장자리 높이가 1950m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 냈다. 내가 사용했던 영국제 기구도 6390피트였다. 온종일 미리 점검하고 테스트를 거친 기구를 사용한 나의 측정이 틀림없다는 증거이다. 이는 독일의 중부지방의 산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높이이다. 타우누스 산(라인 강 동남쪽에 있음)의 펠트베르크나 튀링엔 인젤베르크(평지 한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산)를 브록켄산(독일 하르츠 지방 최고의 산) 위에 쌓은 높이와 같다.

이렇게 높은 산이 대양(大洋) 가운데 솟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런 해양 기상대 위에 서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탁 트이는데, 그 정도를 스스로에게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론 해변에서도 쉽게 시험해 볼 수 있다. 바닷가에서 모래 언덕이나 등대 위에 올라 보면 가시 반경이 갑자기 커짐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한라산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섰을 때에 어떤 느낌인지를 좀더 근사하게 비교할 수 있으면, 헬골란트에 있는 암석섬의 30배가 되는 높이를 상상해 보

라. 그 정도면 여기 제주에서와 똑같은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높은 지대에서라면 함부르크, 뤼벡, 브레멘 등의 탑들을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쾰른 돔에서 북해까지, 그리고 다른쪽으로는 프랑크푸르트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보다 꼭 배가 더 높은 페네리제의 피코산 같은 거대한 산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 산 바로 옆 대서양에 우뚝 솟아 있는, 높이가 한라산과 똑같은 그란 카나리아의 라스 니베스의 피코델 포초산이 아마 가장 좋은 비교가 될 듯하다. 다만 그 산이 중국 동쪽 바다에 있는 한라산과 비슷하게 홀로 우뚝 솟아 있어서 옆에 있는 거대한 그 피코산보다 낮지 않다면, 레오폴트 폰 부흐나 알렉산더 폰 훔볼트 이래 몇몇 여행자들이 카나리아의 화산들을 등정해 왔겠다. 그들 가운데는 에른스트 헤켈 같은 독일 사람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 웅장한 원경(遠景)에 대한 감격적인 은혜를 입기라도 한 듯 떠들썩하게 전한 바 있었다.

아직까지 백인은 올라 본 적이 없는 한라산 정성을 내가 정복한 것은 대단한 기쁨이었다. 그렇게 많은 반대와 장애물에 부딪혔던 그 작은 모험을 다 행히 완수할 수 있었고, 힘든 탐험 여행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고의 대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제주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위에서 느꼈던 매력은 아니었다. 250년 전에 난파당한 네덜란드인들이 처음으로 보았으며, 아주 드물게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유럽인들이 그 섬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 접근하기 힘든 산, 나 이전에는 아무도 오르거나, 스케치하거나, 촬영하거나, 측정을 하지 못했던, 지극히 신기한 대양의 화산을 약간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정복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약간 즐거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시간이나 전문가로서의 충

분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섬과 그 화산에 대한 나의 지리학적 업적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지나간 모든 수고를 잊게 해 준 것은 내가 최초의 사람이라는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억제할 수 없이 갑자기 밀려 오는, 내가 나의 속사람을, 즉 오랜 떠돌이 생활 속에서 아직 결코 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것, 아주 위대한 것을 체험했다는 느낌이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대양(大洋)을 대하거나 만년설로 덮여 있는 높은 산맥지대를 보게 될 때, 어떤 예술가가 대단한 말이나 색채나 또는 음조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올 때, 피라미드나 중국의 거대한 만리장성 등 어마어마한 인류의 걸작품을 처음으로 대할 때에 느끼는 법인데, 그것은 죽을 때까지도 지워지거나 퇴색하지 않을 인상들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뇌리 속에 아주 예리하고 깊숙히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 끝없는 새롭고도 중요한 인상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유사한 분위기에 접하게 되면, 그 당시 처음으로 느꼈던 감상이 다시금 움직이게 되고, 당시의 그 강력한 감동이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뇌 속에 그 흔적을 남긴 수많은 다른 체험이나 생각들 혹은 느낌들에 파묻혀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것이라도 되듯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무한한 공간 한 가운데 거대하게 우뚝 솟아 있는 높은 산 위에 있으면 마치 왕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위 사방에는 오로지 하늘과 바다의 빛나는 푸르름 뿐이다.

비록 태양은 그 생애의 절정에 이르렀건만, 아주 가볍고 투명한 베일이 아주 멀리 떨어진 파노라마에 아직 남아 있었다. 물과 공기의 경계가 섞여서, 마치 우리의 발 아래 바위로 된 단단한 토대를 갖춘 섬에도 탄탄한 바닥이 없고, 모든 것이 이 한없는 비현실적인 파란 빛의 세계에서 헤엄치고 날아다니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라도 하듯이, 뚜렷한 공간적인 경계가 없이, 동화 같은 무한으로 이어져 있

다. <중략>

그러나 시선은 지도 모양으로 우리 아래 쪽에 펼쳐진 섬 내륙 지방으로부터 빙 둘러 아치를 이루고 있는 그림 같은 창공 속으로 자꾸만 미끄러져 들어간다. 마치 이 세상을 초월한 듯 영원 속으로 사라져 가는, 공기와 물로 이루어진 끝이 없는 대양, 그 공간적인 한계를 감지할 수 없는 밤의 창천(蒼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 보이는 이 대양을 전혀 표현할 수가 없다.

게다가 여기에는 우리가 아름답고 맑은 겨울 밤에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영원한 정적이 없고, 모든 것이 활동이자 생명이요, 형태와 색채의 변화이다. 매 순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 모습이 달라지지만, 늘 매혹적이고 새로웠으며, 가득 찬 예술가의 뇌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 색채가 다채로웠고,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생각해 낼 수 없을 정도로 그 변화무쌍한 형태들이 이국적이고 다양하다.

때로 빠르고 뾰족하며 가벼운 새털 구름이, 일본의 한 몽상가의 유희를 곁들인 시에 나오는, 편대를 이루어 날아가는 왜가리들 처럼 우리의 발 아래로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 보다 더 짙고 큰 안개 덩어들이 뭉쳐져서, 부드럽고 온화한 푸른색을 바탕색으로 하는 웨지우드 도자기 위에 그려진, 성긴 무명으로 만든 가벼운 옷을 입은 춤추는 소녀들이 있는 줄무늬 장식처럼, 창공을 배경으로 하여 이리저리 너울거리는 길다란 대열을 이루기도 한다. 보다 빠른 바람에 안개 모양의 것이 걷히자, 찬란한 줄무늬, 즉 물고기 비늘로 뒤덮인 것처럼 보이는 신비스럽고, 거울처럼 매끄럽고, 반짝거리는 평면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두쥬뜨(Douzette)의 달빛 유희에 나오는 것 같은 양떼구름이 아니며, 그것은 전혀 공기의 형상이 아닌 것 같다.

그 형상은 점점 더 신비로워진다. 물고기 비늘의 색이 변한다. 보다 얽게 빛나기도 하고, 보다 진하게 빛나기도 하며, 보다 더 가까이 모이기도 하고,

보다 더 멀리 떨어지기도 한다. 일단 그것들이 잠시 완전히 사라져 버리자 비로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바람에 잔물결이 일렁이는 거울같은 바다의 표면인 것이다! 도대체 그 누가 이 산 위 공중에서 바다를 구할 것인가? 그것은 이 산 위에서 보이는 그 모든 기이한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으로, 마치 대양이 하늘로 올라오기라도 한 듯, 마치 평지 전부가 우당탕 열려서 해수면으로부터 거의 2천 m 위에서 서 있는 이 곳에서도 또 다시 우리를 우리의 눈이 닿는 데까지 밀어올린 듯,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우리의 안계(眼界)를 끌어 올려 준다. <중략>

제주 바로 앞에, 특히 제주 남쪽 해안선 앞에 있는 몇 안되는 아주 작은 바위섬들은 바로 우리의 발치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섬들은 눈이 부시게 하얀 줄무늬가 반원으로 아주 깨끗하게 에워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위 투성이의 해안에 부딪혀 거품을 일으키는 파도였다.

세계서 보기도문 '油畵' 뿌리치기 힘들어

한라산 정상으로부터 펼쳐지는 이 굉장한 유희(油畵)를 뿌리치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두워지기 전에 똑같이 힘든 길을 따라, 오늘밤에도 다시 우리를 틀림없이 보호해 줄 우리의 포근한 동굴로 되돌아가야 했다.

또한 분화구 탐색이라는 주목적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었다. 정상은 굉장히 추웠다. 짐꾼이 질질 끌고 올라온 따뜻한 겹옷을 걸쳤지만, 우리 모두는 추위를 타는 사람들처럼 추위를 느꼈다. 게다가 축축한 동굴 바닥 위의 침상에서 밤을 지냈기 때문에, 코와 목과 위 등은 완전히 얼어 있었으며, 웅웅 소리를 내며 한라산 봉우리 주변을 강타하는 살을 에이는 듯한 북동풍에 시달렸다. 여러 시간에 걸친 힘든 등산으로 인해 아주 심하게 상기되어 있었기에

북동풍으로 인한 고통이 더 심했다. 그래서 동행자들은 내가 또 분화구를 돌아보고, 분화구 벽들의 높이를 재고, 분화구의 사진을 몇 장 찍기 시작하자 아주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지름이 약 400m인 의외로 작은 분화구가 약 70m 높이의 가파른 벽들로 에워쌓여 있음을 알아냈다. 바닥에는 겨울 눈에 다 덮이지 않고 남겨진, 큼직한 웅덩이보다 약간 더 큰, 작은 호수가 빛나고 있었다. 제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호수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지하 세계로 통하는 입구가 그 호수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긴 깊은 틈새일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언저리에는 육지에서 제주섬을 '말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가져다 준 바로 그 왜소한 체구의 작지만 강인한 야생마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텅수룩한 방한모피 때문에 그 말들은 좋지 않은 산악기후에 전혀 구애받지 않은 것 같았다. 그 말들은 아무리 혹독한 겨울에도 보다 아래 쪽에 위치한 목장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바람막이가 되어 있는 분화구 가장자리 지점에서 나는 두툼하게 쌓인 말똥을 발견했다. 이는 단련된 그 짐승들이 밤에도 바람 많은 이 정상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산골에 사는 한국인은 말들에게 뜨끈한 콩죽을 유일한 먹이로 준다고 했다. 이는 야생 산짐승들의 자연 그대로의 본성을 그 얼마나 심하게 조소하는 것인가! 남쪽 방향으로 원추형 화산의 경사가 아주 심해 보였기 때문에 남해안으로부터 큰 등산장비 없이 이 산에 오르기는 아마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고도가 훨씬 더 완만하게 높아지는 동쪽으로부터 올랐더라면, 우리가 택한 길보다 좀 더 쉬웠겠지만 훨씬 더 지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체로 나는 우리가 빨리 오르기에 가장 좋은 길을 발견했으며, 업적과 성과에 만족할 수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만 고통스러웠던 것은 퇴

각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비길 데 없이 훌륭한 피노라마를 즐기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단축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간단한 간식을 들고 난 뒤, 퇴각 나팔이 울려 퍼지자 빠른 걸음으로 그 동굴을 향했다. 편리성을 고려함이 없이 한번도 쉬지 않고, 대개는 속보로, 자주 미끄러지면서,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해서 내려갔다. 세 시간 동안 이렇게 무섭게 질주하고 나자, 기상천외한 우리 숙소의 입구 앞에서 관솔나무 불이 환영하듯 우리를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이곳에서 밤을 세우고, 다음날 서서히 하였다.

나는 한국 황제의 제주 대리인인 이재호처럼 즐거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드물다. 내가 출발한 후 3 일째 되는 날 저녁에, 내가 여행단 선두에서 건강하고 활기 넘치게 그의 도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착한 사람은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가 모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는 그 엄청난 살육사건 뒤, 모든 관현을 그렇게 불손하게 무시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원주민들 때문이라기 보다는, 진짜 한국인이란 누구나 야생동물이나 잔인한 인간보다 더 두려워했던 산의 악령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운수 좋게 내가 귀환함으로써 산신들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는지 모르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원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행할 사람들에게 고통이 상당히 편리해질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높은 산에 사는 미지의 존재란 원주민이나 외지인들에게는 결국 괴롭히는 마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내가 떠날 일을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 당장 나에게 분명해졌다. <끝> 

오프라인을 기반으로한 프랜차이즈 공예문화상품기업 크리에이티브42 최연수 대표

공예문화상품 “받드시 한다, 받드시 된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 앞. ‘우리꽃’이란 가게의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서면 모던한 분위기의 시계와 스탠드·옷걸이·인형·화병 등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숫대로 만든 옷걸이, 가슴기 겸용 시계, 물고기를 문 오리형태의 탁자종등. 상품마다에는 가격과 함께 작가 이름도 적혀져 있어 마치 조그만 공예품 전시장을 둘러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

하지만 ‘우리꽃’은 명실공히 14년된 공예문화상품 매장으로 지난해 문화벤처그룹 크리에이티브42가 인수해 새롭게 단장했다.

크리에이티브42는 공예작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예품들의 기획과 개발·유통·판매를 도맡아 하는 문화벤처그룹.

조금 후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한 최연수 크리에이티브42 대표(35)가 ‘우리꽃’안으로 들어왔다. 서울대와 대학원을 나온 후 모 연구소와 리조트 업체인 보광피닉스파크에서 아이디어뱅크 팀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각국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보았을 때 어디가나 똑같고 기껏해야 로고나 붙여 나오는 우

리의 특색 없는 관광기념품에 회의가 들었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 자연스럽게 공예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공예관련 분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리 모임을 만들어 연구를 계속하다 99년 11월 연세대와 창투사에서 실시한 벤처기업공모전에 사업기획안을 테스트 받을 양으로 별 기대없이 응모했다가 1위에 오르는 행운(?)을 안았다.



△ 최연수 크리에이티브42 대표

공예작가 1700명 데이터베이스화

이를 계기로 지난해 1월 28일 크리에이티브42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잘 나가는 직장 발로 차고 ‘끓어죽기 딱 좋은’ 공예문화상품분야에 뛰어드는 무모함에 주위의 반대도 컸지만 최씨는 아직까지 산업화 구조가 안된 공예문화상품의 현실에서 거꾸로 성공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다.

1차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Craftabout.com’에 전국의 6천여 공예작가중 상품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1천7백여명을 데이터베이스로 묶어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예문화상품 전문 MD(머천다이어저)를 따라붙였다. 이는 크리에이티브42를 성공시킨 노하우라 할만 하다.

모두 3명인 MD는 공예작가로 부터 상품을 구매해온 후 매장과 인터넷에 올려놓고 1개월간 판매 추이를 유심히 지켜본다. MD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품소싱 부터 디자인 수정 · 포장 · 매장 직원 반응 조사등의 전과정을 거쳐 ‘될성 부른 떡잎’을 골라내는 것이다. 예를들어 MD가 매장에서 보건대 손잡이가 있으면 더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공예작가와 의논해 손잡이 달린 컵으로 디자인을 바꾼다. 이처럼 철저하게 고객위주로 상품의 색상이나 디자인 · 가격등을 정하는게 크리에이티브42의 상품화 전략이다.

또 하나는 세트화 전략. 핸드메이드 스탠드를 사간 고객은 다음에 또와 집에 있는 공산품 탁자를 바꾼다는 것. 이미 사간 스탠드와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상품에 작가 프로필이 들어가는 것도 특징이다. 다만 포장용기에는 크리에이티브42의 고유한 로고가 새겨진다.

온라인 분위기인 크리에이티브42는 오프라인을 매우 중시여긴다. 그 대표적있게 바로 ‘우리꼴’이다. 여기서 공예작가의 상품을 매입해 도 · 소매로 판매한다. 이처럼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자 그동안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빛좋은 개살구’로만 인식했던 공예작가들도 서서히 인식을 바꿔 크리에이티브42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크게 탄력을 받게 됐다. 이곳의 주력판매상품은 거울 · 시계 · 옷걸이 · 조명등 생활용품과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기프트 상품.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35~40대 여성이 메인 타겟이다. 이처럼 고가품으로만 취급됐던 공예품을 누구나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에 밀접한 아이템으로 재구성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공예품은 본래 생활과 가깝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MD3명 소비자반응 살피며 상품 개발

내부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크리에이티브42는 현재 ‘우리꼴’을 비롯 목동 행복한세상백화점 · 문정동의 LG마트 · 삼성프라자 분당점등에 직영점 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당 매출액이 2천만원을 넘어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이와함께 크리에이티브42는 평촌 뉴코아백화점 · 잠실 롯데월드 · 산본 백화점등 3곳의 가맹점을 비롯 전국 각지에 45곳의 취급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크리에이티브42는 명실공히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예문화상품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가 하며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매장에서 픽업과 교환을 하는 온 · 오프라인 결합을 이루고 있다.

최씨는 “다른 인터넷 업체들이 그저 유통만 하는 것과 달리 직접 제조도 하기 때문에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제조’라고 해서 별도의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예작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OEM(주문자생산방식)으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공장이 없어도 언제나 공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낸다는 얘기다.

마포 성산동에서 출발한 크리에이티브42는 최근

역삼동 벤처타운 빌딩을 거쳐 물류창고가 있는 남부터미널로 사무실을 통합했다. 현재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와 제휴를 통해 B2C(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동시에 문화상품과 접목한 기업의 판촉물 개발·판매등 B2B(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주력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42는 최근 들어 B2G(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얼마전에는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총체연극 '우루왕'의 리허설때 부터 도자·유리·금속·섬유 분야 작가들을 참여시켜 '우루왕'의 주인공과 주요 장면을 본떠 만든 토우 9종을 개발해 판매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할 것 같은 공예문화상품을 다

각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는 최씨는 창투사로 부터 투자를 받을 때 "크리에이티브42라는 회사 이름 덕을 보기도 했다"며 거기에 담긴 뜻을 자세히 풀이한다.

"크리에이티브42의 '사이'는 공예문화상품이란 틈새시장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뜻과 함께 작가와 고객의 중간에 서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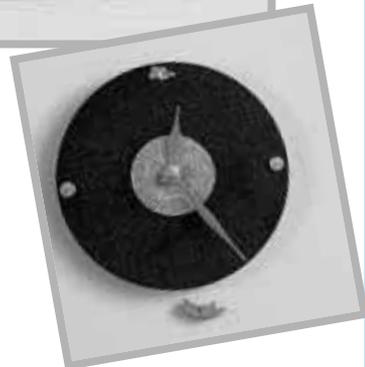
그런가 하면 최씨의 명함에 적힌 이메일은 더 튼다. 'banhanda@craft42.com'

"banhanda(반한다)구요?"

"반드시 한다는 뜻이에요" 

크리에이티브42의 문화상품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활용품·인테리어 소품·선물용품등을 추구한다. 오리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모습의 탁상종(2만원), 아이들이 천진난만스럽게 감자를 먹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감자세트(1만8천원), 어머니와 딸이 다정스럽게 똑같은 포즈를 취한 님은꼴(40만원), 원통오브제(12만원), 솟돌판의 질감을 살리며 현대화된 분위기를 내는 검정 혼들시계(2만5천원). 내가 써도 분위기 나고 선물해도 그만인 상품들이다.



“사무국장님들이 단비 몰고 왔군요”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전국의 농토가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90년만의 가뭄으로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높아만갔던 6월.

서울의 종로문화원부터 제주의 서귀포문화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문화원 사무국장 170여명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연수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창원 부곡 파크관광호텔로 모여들자 다른 기관·단체에서 드린 기우제에도 귀를 딱 막는 무정함을 보였던 하늘에서 마치 소원을 들어주기라도 하듯이 한방울 한방울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제11차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 연수회는 모처럼 내린 단비로 인해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안진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의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와 북한의 단기 연호 채택 사례를 예로 들며 “국민에게 역사를 조명하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자존심과 힘을 심어주는 게 많은 회원을 가진 지방문화원이 담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김혁규 경상남도지사는 최철국 문화관광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전국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단비를 몰고 온 사무국장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21세기 문화의 꽃도 활짝 피우고 좋은 추억도 많이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종성 전국문화원연합회 경남지회장은 환영사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에서 김혁규 지사를 두고 “작년에는 외국의 기업 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둬 전국에서 명망이 높았으



△창녕의 문화유적을 둘러보며 질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들(위로부터 우포늪 · 교동 고분군 · 성혜립생가)

나 이제는 세계 유수의 조각공원을 만드는등 문화에 대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을 대표해 김창훈 함평 문화원 사무국장이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앞에서 선서를 함으로써 2박 3일 동안의 연수회는 막이 올랐다.

첫날은 김종현 전국문화원연합회 경남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최천식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 · 이진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 · 김민수 광진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이 나와 강연했고 저녁에는 권경석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혁규 경상남도지사가 제공하는 만찬을 들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둘째날은 오전에 창녕박물관 · 교동 고분군 · 우포늪 · 석빙고 · 성혜립 김정일 전 부인의 생가등 창녕 일대의 문화유적을 답사한데 이어 오후에는 이원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 · 박재순 한국통신통신망연구소 연구원 · 이성근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가 강연했다.

마지막날에는 백락구 포항문화원 사무국장(전국 문화원사무국장협의회회장)의 사회로 이현우 안산문화원 사무국장과 김인권 부여문화원 사무국장이 나로 문화원 성공 사례발표를 한데 이어 마지막으로 김열규 인재대 교수가 나와 경험담을 섞어가며 지역 문화에 관해 강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번 연수회에서는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들이 현장에서 5천원씩, 1만원씩 주머니돈을 털어 한해민들에게 성금 81만5천원을 전달했다.

특색없는 문화원은 생존 어려워

최천식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

“문화원은 생활문화의 중심에 서야한다. 강좌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해야 한다. 일례로 ‘논어강좌’를 열면 한문 교육과 함께 윤리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 청소년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앞으로 특색없는 문화원은 생존하기 어렵다. 내년도에는 문화원을 다면평가해 사업비와 향토사료조사비를 차등지원하겠다”



이어 질의·답변시간에서는 변후연 서울시지회 사무국장이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교감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담당자·문화원장·사무국장이 한 곳에 모이는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국고를 지방문화원에 제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세미나는 전국문화원 연합회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할하겠다”며 “국고가 늦은 것은 양해해달라. 가능하면 제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재욱 공주문화원 사무국장은 “2천만원의 문화원 경상운영비를 행사부와 협의해 하한선으로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최소한 2천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는 데서 나온 건데, 그러기 위해선 우선 기초자치단체와 마찰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같은 공주문화원의 사정을 들은 정용순 문경문화원 사무국장은 “우리 문화원도 2천만원의 경상운영비 밖에 받지 못했는데 목을 바뀐 문예사업보조금으로 신청해 3년전부터 1천만원 정도를 지원 받고 있다”고 조언했다.

순수문화예술에 관심 가져야

이진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

“지방문화예술축제중 순수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되는가? 대중문화예술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순수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 경제논리와



문화논리는 상충관계다. 그 사업을 하면 수익이 올라가느냐고 따진다면 문화예술재원확보는 어렵다.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은 비영리적·공공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문화회관을 지을 때만 보아도 정치논리가 지배적인 경우가 종종있고 그런 다음엔 경제논리로 인해 다시 문화회관이 도마위에 오르고 게다가 무대 스태프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해 허수구를 담당하던 사람을 단지 기능인이라는 생각으로 음향·조명기사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연합회 부설로 향토사연구소 만들어야

김민수 광진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최근들어 우리문화원의 고유한 분야인 향토문화에 전문연구자들의 관심이 늘어 나고 있다. 향토사연구자와 전문연구자는 구



별되어야 한다. 전문연구자는 지방사와 중앙사, 지역사와 세계사라는 범주속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향토사연구자는 그야말로 향토문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제부터는 향토문화의 고유사업을 지방문화원이 방어하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토사학자를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문화원연합회 부설 향토사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향토문화 각 분야의 역사·유적·유물·민속(놀이)·세시풍습·구비전승문학등 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 연수하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또 향토사연구자들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마다 들어서고 있는 향토사료관·민속박물관·전통마을·특산물단지등 요소요소에서 계약직이나 봉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향토'를 뺏겨선 안된다. 그 잉여의 3분의 2라도 챙겨야 한다"



△창녕군 영산 만인교

문화원의 존재 알리고 역량 키워야

이원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

“문화원에 대한 애정 만큼이나 비판도 많이 한다. 지역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문화원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일부 문화원은 축제에



서 소외되는 인상이다. 축제를 주최하던 문화원도 시군에 빼앗기곤 한다. 뺏는 측도 문제 있지만 핑계 거리를 제공한 빼앗기는 측도 문제 있다. 문화원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송구스런 얘기지만 문화기관단체중에서 정보화마인드가 가장 뒤떨어진 곳이 문화원이다. 지난해 문화원 예산 평균은 공교롭게도 123,456,789원이었다. 그런데 이 금액 이하로 예산이 책정된 문화원이 절반 넘었다. 문화원이 고유한 목적사업을 벌여나가며 문화원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노인만 염두에 두지 말고 청소년·여자도 끼어넣어야 한다. 물론 전통문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맞게 문화행사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원 사업 '독특한 콘텐츠' 가능성 높아

박재순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 연구원

“현재 인터넷 업계의 화두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해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비즈니스모델을 특허로 보호하는 추세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누적인 일을 또 앞으로 할 일을 독특한 콘텐츠로 가공할 수 있다.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일은 다른데선 다루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잘 가공하면 독특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느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를 소개할 때 ‘~하였다’는 식으로 끝나는 콘텐츠로는 아무런 흥미를 끌지 못한다. 한 예로 정동진을 말하면 그곳에 어떻게 가고 몇시간이 걸리고 무엇이 있는지의 핵심적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세계에서 유용성·효율성·수익성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



‘의미있는 공간’을 만드는게 지역문화

이성근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21세기는 문화가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야 말이 되는 시대다. 개성있는 지역문화는 지역의 감초이자 지역의 자원이다. 문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 문화가 경제 발전의 한 수단이 된다. 과거엔 문화공보실·문화진흥과가 고작이었는데 지금은 문화산업과라는게 생겨났다. 종전에는 국가가 물건을 내다팔아야했는데 지금은 문



△창녕군 고나리에서 태어나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나라를 구한 사명당 홍운대사를 기리는 표충비각. 나라에 큰 경사가 나거나 난리가 생길때마다 땀을 흘리는 비석으로 유명하다. 땀이 흐른 기록은 1894년 갑오군란 때 3말1되를 흘린것으로 부터 시작해 2001년 2월 28일 1말 2되를 흘리기까지 24차례에 이른다. 원안은 땀을 흘린 자국.

화가 밖에서 안으로 부를 끌어당긴다. 그것이 문화 산업이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meaningful space(의미있는 공간)를 만들어야 한다. 15년만에 안동에 내려갔는데 실망스러웠다. 처음엔 경제 때문에 개발하지만 나중에 상품가치가 사라져 버린다. 대규모 개발은 안된다. 일본처럼 서서히 단계별로 주민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거나 그 가치가 크고 화려한 지역 문화만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가치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순박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문화를 발굴·보존·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맥도널드’ 식

김열규 인재대 교수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의 기원을 몰라선 안된다. 민속 문화는 생물이 다. 강과 산이만 들어낸 것이다. 아리랑도 그렇

다. 그 중에는 ‘정선읍네 물레방앗간은 물살을 안고 도는데 우리집 낭군님은 날 안고 돌출 몰라. 정선읍네 물레방앗간은 물살을 안고 도는데 어찌타 내 한 평생은 밭고랑만 안고 돌아 라는 가사가 있다. 이처럼 우리 할머니들은 아리랑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했었다. 그래서 민요가사는 우리의 폐부를 찔러놓는다. 어느 시나 소설도 못따라온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인스턴트식으로 변해 버렸다. 혼례도 10분만에 끝난다. 예전에 24시간 꼬박 치르던 혼례와 비교해 보라. 혼례에 대해 신랑·신부가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다. 예전의 혼례는 동네 잔치였다. 춤과 노래를 따로 보존·계승할 것 없이 혼례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춤과 노래가 전승되는 것이었다. 문화원 마당을 혼례장으로 내놓는 것도 좋을듯 싶다.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상가집에도 곡소리가 안들린다. 예전 강화지방엔 곡을 해주고 돈을 받는 이춤마을도 있었다. 이 곡은 ‘늘어진 3박자’다. 이제는 문화를 밖으로만 보내지 말고 지역으로 돌려줘야 한다. 지금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맥도널드식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창녕의 문화유적 부근에는 보리가 누렇게 익어 초여름의 정취를 더했다.

회원관리프로그램 구축한 후 사무·발송 편해져

이현우 안산문화원 사무국장

“94년 당시 7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 회원관리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사람도 잠적하는 바람에 곤란을 겪었다. 그후 몇개월동안 수소문한 끝에 한 컴퓨터학원장이 코볼을 다룰줄 안다고 해서 그에게 의뢰해 현재까지 쓰고 있는 회원관리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 지금은 사무실에 다섯대의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486컴퓨터 한대와 도트 프린터 한대를 회원관리 전용으로 쓰고 있다. 회원관리프로그램은 고문이나 임원·일반회원·전국문화원등 데이터를 입력한 후 코드로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M 발송도 아주 손쉽다.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하나의 회원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원에 보급해주었으면 좋겠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안산스트리트라는 인터넷 회사 사장에게 의뢰해 만들었다. 월 관리비는 10만원이지만 그 사장이 이사로 영입됨에 따라 월3만원을 제한 후 매달 7만원씩 지출하고 있으나 월3만원을 받는 배너광고 3개를 수주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다”



관광 및 답사프로그램 통해 이미지·수익 높여

김인권 부여문화원 사무국장

“우리문화원에서는 부여가 사적관광지이므로 10여년전부터 관광 및 답사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당국과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자체수입 증대에 있어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문화원의 관광 및 답사 관련 사업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부여를 찾는 일반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등 두 종류가 있다. 주민대상프로그램의 참가비는 연3만원으로 도시락을 지참케 한다. 송파문화원은 지난해 12월에 우리 문화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금년에 답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했는데 자체수입도 올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높이는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관광과 답사를 위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면 1년에 5백만원에서 6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지금은 프로그램만 좋으면 다른 지역도 방문한다. 우리 문화원에게도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에 팔아먹자’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태계의 보고 우포늪

1억 4천만년전의 원시적 저층늪이 그대로 간직된 우포늪. 60여만평에 이르는 이 천연 늪 속에는 350여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동식물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우포늪은 국내 최대 규모로 천연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창포



△아름



△흰어리 연꽃



△노랑어리 연꽃



△넓적부리(암컷)



△청둥오리



△고니



◁철새

▽가시연꽃



조선 전기 강호문학의 선구자 이현보

농 암(農巖) 이현보(李賢輔 : 1467~ 1555)는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암가(農巖歌)', '어부가(漁父歌)' 같은 국문시가를 창작하거나 개작해 영남가단을 창시한 인물이다. 그는 연산군 때 과거에 급제해 연산군-중종-인종-명종 등 4대를 섬기면서 무려 44년(32세에서 76세까지)간이나 봉직했다.

이 기간 동안 주로 외직을 자청해 아홉 고을의 수령과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했는데 치적이 우수해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으며 청렴 결백해 청백리로 선발되기도 했다.

그는 외직을 역임하는 동안 향토에 기반을 둔 사대부 계층의 향촌 자치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고을을 다스렸는데 벼슬에서 은퇴한 뒤에는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처사적(處士的) 삶의 방식을 개발해 내는데 몰두해 후배인 이황이나 이황의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강호생활(江湖生活)의 풍류(風流)를 즐기는데는 율기만 하는 한시보다도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국문시가가 더 유용하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스스로 '효빈가(效顰歌)', '농암가', '생일가' 같은 단가(당시는 아직 시조창이 나오기 이전이므로 시조라는 명칭이 없었음)를 짓기도 했다.

또한 83세 때 잊혀져 가던 '어부가' (12장)를 재발견해 이를 개작했는데 이현보에 의해 개작된 '어부가' (9장)는 흔히 농암 '어부가' 로 불리며 조선후기의 한국문화(문학과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

원래 중국의 악부시(노래로 부를 수 있는 시)인 사(詞)에서 유래한 기존의 '어부가' (12장)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사(詞)와 함께 사라져 가고 있었는데 이현보는 이를 재발견하고 다듬어 농음으로써

'어부가' 가 우리나라 노래인 장가(당시에는 가사를 장가, 시조를 단가라고 불렀다)로 재창조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이 농암 '어부가'는 뒷날 궁중의 무용극인 정재(正才)에서부터 민간의 뱃노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불러졌고 조선말엽에는 십이가사(십이잡가라고도 함)의 하나인 '어부가(일명 어부사)'로 정착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요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현보는 또 기존의 어부단가 10장을 5장으로 개작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현보에 의하여 다듬어진 '어부가' ('어부단가'와 구별하기 위해 '어부장가'라고 부르기도 함)와 '어부단가'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와 같은 작품의 창작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서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어부가'라는 하나의 작품 계열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현보의 국문시가 작품들이 영남의 후배들에게 국문시가의 필요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창작으로 계승되고, 다시 이황의 제자인 권호문(權好文)의 '독락팔곡(獨樂八曲)'과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이숙량(李淑樑)의 '분천강호가(汾川江湖歌)'의 창작으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국문학사에서 영남가단이라고 불리우는 국문시가 창작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송순-정철-윤선도로 이어지는 호남가단과 함께 조선후기 한국문학을 풍성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伴 鷗 亭

파주문화원 제공

반 구정(伴鷗亭)은 전 재상 익성공(翼成公) 황희의 정자이다. 황희정승이 죽은지 근 3백년, 정자는 허물어지고 쟁기질을 하였고 땅은 황폐하여 또 100년이 지났다. 이제 황희정승의 자손이 강상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반구정이라 이름하였다.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은 또한 좋은 일이었다. 황희정승의 열렬한 공로는 지금까지 어리석은 남녀 간에도 다 찬양하고 있는 터이다

황희정승은 나아가서 조정에 임하면 곧 능히 임금을 보좌하고 정치에 체통이 바르며 못 벼슬아치로 하여금 어질게 직분을 지키게 하고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이 자기 직업에 기꺼히 임했다. 관직을 물러나 호수가에서 늪어가며 기꺼히 갈매기와 더불어 모든 것을 잊었다. 헌면(고관이 타던 초헌과 머리에 쓰던 면류관)을 보기를 뜬 구름같이하여 대장부의 하는 일이 특이하기가 이와 같았다.

야사에서 명인의 고사를 전하기를 “황정승은 평생 말이 적어 사람들이 그 기쁘고 노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사무를 당하면 대체를 가지고 세밀한 것을 따지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이 황정승의 이름이 백대에 이르도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정자는 파주 서쪽 15리에 있고 조수때마다 백구

가 강위로 모여들어 넓은 들판 모래사장에 가득하다. 9월이면 기러기(陽鳥)가 손으로 온다. 서쪽으로 바다는 20리이다.

이 글은 선조 숙종년간의 문신 미수 허목이 쓴 반구정기(伴鷗亭記)를 번역한 것이다.

반구정은 경기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3호로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 있는 정자이다. 조선조 제4대 세종 때의 재상 방촌 황희(黃喜)는 고려말 조선조초의 문신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후 이곳 파주 반구정에서 유유자적하며 여생을 보내었다.

황희 자(字)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이며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1383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389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관이 되었다가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들어가 은거했으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간청하여 태조3년(1394)에 성균관 학관으로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임하였고 그후 직예문추추관 등 여러 직을 거쳐 형조·병조·예조·이조·호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태종16년(1416) 양녕대군의 세자 폐출을 반대하다가 공조판서로 전임되었고 이어서 판한성부사가 되었으나 1418년 세자가 폐출되고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자 이에 반대하여 서인(庶人)이 되어 교하(交河)로 유배되었다가 남원(南原)으로 이배

새로 건립된 반구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초익공 양식의 건물이다. 1967년 6월에 개축하고 1975년에 단청했다. 축대도 새로 설치했다. 임진강 바로 강가 옛터에 세워진 정자 주위에는 황희정승의 영당(경기도 기념물 제29호) 부속건물과 선생의 동상이 건립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



△반구정

되었다.

남원에서 귀양살이를 하며 지금의 광한루를 건립한 것을 보면 누정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황희는 세종4년(1422) 유배에서 풀려나와 다시 조정에 들어와 농사의 개량, 예법의 개정, 천첩 소생의 천역면제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절개가 굳고 국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한 명재상으로 이름을 떨친 황희정승을 추모한 전국의 유림들이 황정승의 유적으로 반구정을 수호하여 왔는데 6.25 전쟁으로 회진되고 말았다. 휴전후 후손들이 뜻을 모아 반구정을 복구하였다.

새로 건립된 반구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초익공 양식의 건물이다. 1967년 6월에 개축하였고 1975년에 단청하였으며 축대도 새로 설치하였다.



△ 황희정승 동상

임진강 바로 강가 옛터에 세워진 정자 주위에는 황희정승의 영당(경기도 기념물 제29호) 부속건물과 선생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으며 잘 보존되고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34호인 황희선생의 묘는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자리잡고 있다. ㉞

과부의 시로 벼슬한 선비

詩

김병학 | 김제문화원장

김 제군 백구면 반월리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내려 오고 있다.

한 농촌에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이 선비는 여러차례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 갔으나 그 때마다 낙방을 하고보니 이제는 기진맥진한 터라 과거를 그만 포기할까 생각했으나 그래도 그간 공부한게 아깝고 여러번 과거에 응시했던 경험도 있고 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도 낙방하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마지막 과거길에 나서게 되었다.

선비는 피나리 붓짐을 등에 걸머지고 하루길을 걸어서 가다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두워져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피곤한 몸을 쉬려고 사방을 두리번 거렸다. 그러자 산중 비탈길에 초가삼간 한채가 외롭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선비는 그 집 문앞으로 다가가서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하고 소리높여 외치니 집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오면서

'누구신데 이 밤중에 주인을 찾으소?' 하고 묻는 것이었다.

'예 나는 길가는 행인인데 날이 저물어서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시오' 하고 간청을 하였다. 여주인은 행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던지 쾌히 승락하여 그 초가집에서 쉬어가게 되었다.

주인은 선비에게 식사대접까지 하였다. 선비는 시장하던차에 밥 한그릇을 눈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다.

식사가 끝나자 여주인은 건너방으로 들어가고 선비 혼자서 큰 방에 남게 되었다. 선비는 하루종일 길을 걸어 피곤하던차에 밥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니 피로가 온몸을 기습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과부같이만 한 주인여자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예쁜 얼굴 날씬한 몸매의 주인 여자에게 자꾸만 호기심이 갔던 것이다. 선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작을 걸었다.

'아주머니 바깥주인은 어대 갔소?' 하고 물었다.

'바깥주인은 이미 세상을 뜬지 오래 되었습니다' 주인여자가 대답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 혼자서 이 산중에 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젊은 청춘인데 이 좋은 세상 외롭게 혼자 살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오늘 저녁 합방하여 결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비의 정중한 청에 주인 여자는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인연을 맺기전에 시(詩) 한수씩을 지어 나누고 나서 인연을

이 때 건너방 주인여자가 건너왔으나 글귀를 채우지 못했으니 결연은 허사가 되었다. 주인여자는 붓을 들어 「號哭黃泉」이라 써서 짝을 채우니 그 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오늘 저녁 당신과 인연을 맺는다면 지아비가 황천에서 올것이다’

맺읍시다’

하고 말했다. 선비는 싫다고 할 수 없는 처지요 글을 읽어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처지라

‘예 좋습니다’ 했다.

주인 여자는 ‘제가 먼저 시 한수를 지을테니 그 뒤를 이어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과거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공부해온 선비는 그만한 것은 문제 없을 것 같아

‘좋소. 그렇다면 댁에서 먼저 시 한수를 써보십시오’ 하였다.

주인여자는 한참 묵상을 하더니 붓을 들어 ‘今夜 夜景新郎 이라고 쓰고나서 붓을 선비에게 내밀면서

‘다음 글을 이어 보시오’ 하였다. 선비가 붓을 들고 글을 쓰려고 하였으나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지라 묵묵부답 앉아 있기만 하였다. 주인여자는 그 뒤 글을 쓴후에 저를 부르시면 약속한 대로 인연을 맺겠다면서 건너방으로 가버렸다.

선비가 이리 저리 궁리하여 보아도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 혼자 끙끙대다가 어느덧 동이 트고 날이 밝아왔다. 선비는 그 고은 과부의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글귀도 채우지 못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이 때 건너방 주인여자가 건너왔으나 글귀를 채우지 못했으니 결연은 허사가 되었다. 주인여자는 붓을 들어 「號哭黃泉」이라 써서 짝을 채우니 그 글

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오늘 저녁 당신과 인연을 맺는다면 지아비가 황천에서 올것이다’

이 글을 본 선비는 절개가 끝은 여인을 넘겨다본 무례를 깊이 사과하고 잘못을 빌었다.

주인여자는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며 종아리를 때렸다. 선비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에 공헌해야 마땅하거늘 아녀자나 넘겨보느냐며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때리고 난 주인여자는 대장부를 벌준 것을 사죄하고 아침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방을 나갔다.

선비는 창피하고 부끄러워 밥 생각은 커녕 그 자리에서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어 살그머니 문을 열고 나와 버렸다.

그 길로 한양에 올라온 선비가 과거를 보는데 과거 출제문제가 「今夜 夜景新郎」이었다. 그 뒤 짝을 맞추라는 문제였던 것이다.

문제를 본 선비는 하늘이 점지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봉변 당한 초가집 주인여자를 떠올리며 서슴없이 「號哭黃泉」이라고 글을 지어 올리니 과연 그 선비가 장원급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선비는 벼슬길에 나아갔고 선정을 베풀며 고을을 잘 다스리게 되었다.

선비가 목민관으로 있는 고을은 항상 번창하고 잘 살게 되었으며 선비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㉞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가교 (상)

요우카이치시와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통영문화원은 지난 5월 26일 일본 시가켄(滋賀縣) 요우카이치시(八日市市)의 카헨이키모노노모리(河邊 いきものの森) 네이처센터(Nature Center)에서 요우카이치시 교육위원회와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통영시와 요우카이치시는 문화·예술·교육·스포츠 등 각분야에 걸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깊게함으로써 한일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글은 위의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영문화원 친선사절단 16명이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동안 요우카이치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기록이다.

말이 3박4일이지 가고 오는데 걸린 첫날과 마지막날을 빼고나면 겨우 이틀뿐인데 그나마 공식일정이 워낙 빠듯하여 그들의 문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이나 유적답사는 그야말로 주마간산격이었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체결한 국제문화교류협정의 효시라는 점과 이에 주목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요청도 있어 이번 여행의 경과를 생각을 더듬어가며 적어보기로 한다.

교량역 김모동 선생



정갑섭
통영문화원 이사

이 방문기에 앞서 이번 일이 성사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을 아끼지 않으신 요우카이치 거주 통영출신 교포 김모동(金模東)선생과 이 일의 경과부터 얘기하는 것이 순서일성 싶다.

김선생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재일교포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65년 요우카이치에 정착한 이래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민간 간부로 한일친선사업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한일양국민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다.

그는 1923년 통영시 미수동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산양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태 후인 1937년, 15살의 어린나이에 혼자 일본으로 건너갔다. 오사카(大阪)에서 첫 객지생활을 시작한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중학교에 다니면서 청운의 꿈을 키웠다. 일본생활이 어느정도 몸에 배이고 생활터전도 잡을만 하던 1944년 징용으로 끌려가 꽤 고초도 겪었다.

전쟁이 끝난 후 20년동안 오사카에서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1965년 요우카이치로 옮겨 정착하게 된 것이다.

1991년 세계연박물관인 요우카이치 오다코회관을 지을 때 그가 유명한 통영연을 기증하고 그의 주선으로 연날리기대회에 통영연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두 도시간에 교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부터는 매년 상호방문 형식으로 양시의 시장,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간부직원과 문화관계인들이 교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교류의 중심에는 항상 김모동 선생이 있었다.

한편, 김선생은 5억원을 들여 통영의 도산면에 잠포수련원을 지어주고 통영문화원에는 2번에 걸쳐 컴퓨터 20대를 기증하기도 하였다.

기왕에 교류를 하는 김에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지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통영시가 난색을 표명했다.

통영시는 이미 일본의 사야마시(狹山市)와 타마노시(玉野市) 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요우카이치시에서는 시대시(市對市)의 결연이 어렵다면 양시를 대표할만한 민간단체끼리 결연하면 어떠한 제의를 해왔다.

이 안을 두고 양측이 수차례 검토한 끝에 통영문화원과 요우카이치시 교육위원회가 문화교류협정을 체결기로 합의하였다.

어차피 연으로 맺은 인연이니 매년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주최하는 통영문화원과 같은 레벨의 요

우카이치시 교육위원회가 협정당사자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4월 28일 나카무라(中村文幸) 요우카이치시 교육위원회 교육장과 실무자 3명이 내방하여 통영문화원 회의실에서 양시간의 문화교류 협정을 가조인했고, 이번에 이를 정식으로 조인하기 위하여 통영문화원 사절단 16명이 요우카이치시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사절단은 김세운 통영문화원장을 비롯하여 정갑섭·한정자 이사, 박익수 감사, 박용태·장태조·안배영 고문, 김건식 자문위원과 최경남 통영시의회 총무위원장, 이갑준 통영시 문화예술계 차석에 신가영, 오예진, 김혜정, 장보리, 김은혜 등 초등학교 다섯명으로 구성된 민속무용단, 그리고 이들을 인솔한 류현악, 이렇게 16명이었다.

우리 통영문화원 사절단 16명은 5월 25일 아침 8시에 문화원에 모여 통영시청에서 내준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갔다. 공항에서 마침 부산에 와있던 김모동선생과 합류하여 11시 30분발 KAL기에 올랐다.

녹색의 전원도시 요우카이치

흐린 날씨였으나 항로의 기상은 나쁘지 않아 1시간반동안의 여행은 편안했다.

우리 일행이 일본 나고야(名古屋)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쳤을 때는 오후 1시 40분경이었다.

검사장 밖에는 안면이 있는 요우카이치 시청직원 두명이 젊은 여자 한명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여자는 통역을 맡은 강지나(姜智娜)라며 자기 소개를 하는데 밝은 얼굴에 수수한 차림이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공항청사 밖 주차장에는 요우카이치시에서 보낸 마이크로버스가 짐칸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채 대기하고 있었다.

요우카이치로 가는 차안에서 차창으로 스치는 주

변에 대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김모동 선생이 맡았고 공식일정에 대한 안내는 통역의 몫이었다.

고속도로를 30분가량 달리던 버스가 휴게소에 들르더니 간단히 요기나하고 가자고 했다.

오늘은 공연히 마음이 바빠 아침도 먹는동마는동했고 가벼운 기내식으로 허기는 면했지만 은근히 시장했던터라 다들 좋아라했고 그래서 그들의 배려가 고마웠다.

본바닥에서 먹는 일본우동은 국물이 시원하고 맛이 좋은데다 양도 얼마되지 않아 다들 그릇을 비웠다.

‘작은 아씨들’ (우리는 어린이 무용단원들을 이렇게 불렀다)은 어느새 종업원들과 사귀었는지 함께 왁자하게 웃는가하면 인형이나 액세서리 따위를 쇼핑하느라고 부산하게 휘젓고 다니면서 야단이었다.

김모동 선생은 손녀딸처럼 귀여운 이들에게 흠뻑 빠져 방문기간 내내 이 애들에게 뭘 하나라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었다.

이날 오후 4시경, 요우카이치 로얄호텔에 여장을 풀 우리는 시장과 시의회회장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 호텔을 나섰다.

요우카이치시는 인구 4만 5천정도의 전원도시이다.

멀리 산그림자가 아스라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는 넓은 평야는 농경지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떡떠떡떠 숲그늘속에 마을이 묻혀 있는데 전통목조주택들이 울도 담도 없이 정답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이 꼭 인상적이었다.

시내 중심부에도 고층건물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조용해서 한가롭고 나즈막해서 편안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어 규모있고 깨끗한 느낌을 주었다.

시청으로 가는 길가의 가로수는 새잎이 돌아 푸르름이 한창이었는데 특히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몽클몽클 피어오른 녹나무(樟)의 연두빛은 ‘녹색의 도시’ 요우카이치의 표상(表象)처럼 보였다.

문화교류에 가는 기대

4시 40분경 버스가 시청에 닿자 나카무라(中村功一) 시장, 후쿠야마(福山憲二) 시의회회장을 위시한 간부직원들, 나카무라(中村文幸)교육장과 교육위원들이 현관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현관 안쪽에서는 100여명의 시청직원들이 한일 양국기를 들고 양쪽으로 도열하여 박수로 우리를 환영해주었다.

시장접견실(귀빈실)로 가는 통로 좌우의 사무실에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목례를 보내 주었다.

우리는 그들의 따뜻하면서도 정중한 환영이 흐뭇했고, 그들이 이번의 문화교류협정에 거는 기대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30평쯤 되어보이는 귀빈실에는 창문에서 입구쪽으로 4개의 장방형 탁자가 길게 놓여있고, 탁자 양쪽으로 4명씩 앉도록 좌석이 배열되어 있었다.

나카무라 시장은 창문 쪽에 교차게양된 한일양국기를 뒤로하고 주석에 앉고 시장 왼쪽에는 요우카이치시와 의회 간부들이 오른쪽에는 우리 사절단이 그리고 우리 뒤쪽으로는 의자 한줄을 따로 놓고 작은 아씨들과 인솔선생이 앉았다.

나즈막한 탁자에는 교차게양된 작은 양국기와 예쁜 화분이 앙증스럽게 놓여있었다.

탁자에 녹차가 놓이면서 공식적인 수인사가 시작되었다.

한사람씩 거명 소개하고나서 나카무라 시장과 후쿠야마 시의회회장의 환영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김세운 통영문화원장의 답사가 있는 뒤에 선물과 명함 교환이 있었다.

선물중 단연 인기는 족자 4점이었다.

박용태 고문이 정성들여 쓴 반절짜리 초서족자를 그 자리에서 펴보며 좋아라고들 했다.

시장집무실과 시의회를 둘러본 다음 시청광장

입구에 있는 호랑이 석상을 에워싸고 기념촬영을 했다. 화강암으로 조각된 이 호랑이상은 김도동 선생이 한국에서 만들어 와서 요우카이치시에 기증한 것이라 했다.

비파호 취향의 노래

우리 일행에 대한 환영만찬은 우리숙소 근처의 중국요리집에서 7시도 채 못되어 시작되었다.



△ 문화교류협정서에 서명하는 통영문화원장(좌)과 니카무리(中村文幸) 일본 시가켄 요우카이치시교육장(우)



△ 문화교류 협정 조인후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영검무를 추고 있다

널찍한 연회실에는 '환영, 통영시 우호친선사절단'이라는 플래카드 아래 5개의 큰 원형 회전식탁이 마련되어있고 식탁마다 7~8개의 명패와 의자가 놓여있었다.

그리고 각 식탁에 여자통역을 한명씩 배치하여 의사소통과 분위기 조성엔 꽤나 신경을 쓰고 있었다. 우리식탁을 맡은 통역은 김화(金花)라는 30살 전후의 중국 연변출신 조선족이었다. 엔지니어인 중국인 남편을 따라 3년전에 일본에 왔다는 달덩이

같은 얼굴에 눈이 맑은 이 젊은 아낙은 우리말도 일본말도 서툴렀지만, 그 얼굴만큼이나 고운 마음씨와 성의를 다해 애쓰는 품이 내 딸처럼 예뻐다.

간단한 수인사에 이어 건배를 하면서 만찬장의 분위기는 슬금슬금 피어올랐다.

일본청주(정종)와 맥주에 얼큰해진 터에 우리가 가져간 가양주(家釀酒)와 소주가 인기여서 마침내 한일양국의 술까지 위(胃)속에서 얼싸안으니 다들 기분 좋게 취했다.

파장무렵,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식탁주위를 사행(蛇行)으로 돌면서 '비파호(琵琶湖) 취향(就航)의 노래'를 합창하던 정경(情景)을 잊을 수 없다.

그 노래는 요우카이치 시민의 노래랄 수 있는데, 곡이 쉽고 음역이 좁은데다 장중하면서도 흥겨워서 두어번만 따라부르면 금방 부를

것 같아 전혀 부담감이 없어 좋았다.

협정서에 서명하고

문화교류협정 조인식장은 카헨이키모노노모리 네이처센터였다. 요우카이치는 연(大淵)과 녹색자연으로 대표되는 도시이다.

카헨이키모노노모리는 요우카이치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르고 풍요로운 자연환경 만들기'의 심볼로서 2002년을 목표년도로 정하고 자연가꾸기가 한창이었다.

이 숲속에 자리잡은 네이처센터는 실내가 약 40~50평 되어보이는 6모집인데 입구 맞은편에 문화교류협정조인식을 경축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 아래에 식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식단을 바라보며 여러줄의 의자를 놓아 시청간부 직원들과 시의원들 그리고 내빈들이 100여명 앉고, 시장·시의회의장·김모동 선생·교육장·교육위원장 회 간부들과 우리 일행이 중앙을 향하여 좌우로 갈라 앉았다.

5월 26일 오전 10시, 자못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우리 사절단이 한사람씩 소개되었고 뒤이어 주최측과 내빈들이 소개되었다.

그간의 경과보고를 듣고 협정서 문안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김세운 통영문화원장과 나카무라 요우카이치시 교육장이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양시간의 문화교류협정은 체결되었고 이를 선포하자 축하박수가 실내를 가득 메웠다.

호뜻한 표정으로 등단한 나카무라 교육장은 “두 도시가 연날리거리는 같은 민속을 갖고 있어 이 공통성으로 시작된 교류가 벌써 7년이 되었다”고 서두를 꺼낸 뒤 “이제부터는 전통문화 중심의 교류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로 확대될 것이기에 이는 양도시 시민들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며 또한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조인식이 있기까지 많이 애써주신 김모동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짙막한 식사를 했다.

김세운 통영문화원장은 “양시가 7년동안 12차례에 걸쳐 상호교환방문하는 동안 민속문화와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쌓여 오늘의 문화교류협정체결의 토양이 되었다”고 말하고 “보다 활발하고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양시의 이해증진과 발전을 도모하자”고 제창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국은 일본의 스승”

뒤이어 등단한 나카무라 시장은 축사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은 명치(明治)이후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지만, 옛날부터 대륙의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졌으므로 한국은 일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에도시대(江戸時代) 이후 12회에 걸친 조선통신사의 파견은 일본의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나카무라 시장은 또 “조선통신사 일행이 요우카이치와 가까운 가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지금도 여러 곳에 남아있다”고 빛나는 교류의 역사를 되새긴 후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선린우호의 기초가 되고 전제가 되는 것은 민중과 민중의 공유문화”라며 두 도시간의 문화교류에 대단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의 이러한 역사인식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대일감정이 악화되던 시기였기에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후쿠야마 시의회의장은 “오늘날 국제화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는 이웃나라와의 우호교류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어린이와 시민문화단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슷한 내용의 구니마츠(國松善次) 시가현지사의 축전 낭독을 끝으로 조인식은 끝나고 우리 어린이 무용단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다음호에 계속)

호전적 · 이기적 대국주의에 경종 일본학자들 양심의 목소리 높여

정리 : 류장수 편집주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지난 80년대에 이어 또다시 불거져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 등 대동아전쟁으로 일본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으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낸 일본의 극우 보수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 모임' 과 많은 일본국민들의 정서가 궤를 같이하고 있고 일본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일본내의 양심의 소리를 담은 책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길사'에서 펴낸 '신의 나라는 가라' 는 책이 그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에 근무하는 이충호가 옮겼다.

이 책은 국제외교문제로 번진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일본내의 학자들이 비판한 글을 모은 것이다. 이 책에는 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 사무국장 우에스기 사토시(土杉 聰)·도쿄 카쿠에이대학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교수·카쿠슈인대학 고시다 다카시(越田稜)교수·류큐대학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교수 등의 글이 실려있다.

월간 우리문화는 지난 5월 23~24일 전국문화원장연수회에서 전국의 문화원장들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의 문화원이 그 부당성을 천명하는 현수막을 만들어 내걸기로 했으며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때까지 계속 투쟁기로 한바 있어 이번 7월호에 일본의 양심적 진보주의 학자들의 자기비판 내용의 글을 요약해 소개키로 한다.

우익운동이 교과서를 만들었다

우에스기 사토시

지금까지 배후에서 우익운동을 지원해온 산케이 신문사와 후쇼사의 협력을 얻어 2002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로 '역사' '국민' 두 책을 검정신청했다. 지금까지 중학교 교과서를 신청한 출판사는 7개였지만 이번에는 8개사가 신청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 모임'(이하 새역모로 표기)은 즉시 TV등에 이 검정신청본의 선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천황제에 기초한 역사관(황국사관), 아시아에 대한 가해책임이 빠진 무반성사관·인권·개인 등의 가치를 부정하는 초월적 국가주의, 평화의 추구를 경시한 호전적 이기적 대국주의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새역모의 '교과서' 검정신청본에 대한 비판이 크게 보도되자 위안부 여성들을 지원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9월 19일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자"고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직후에 방일한 김대중대통령도 "(검정신청은)허가될 수 없다고 믿는다.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를 취해서든 (일본정부에)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표명했다.

만일 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현재 검정기준에 있는 "이웃한 아시아 여러나라간에 근현대사의 역사적 현상을 언급할 때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만큼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란 이른바 근린제국조항의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러가지 장애가 아시아 근린제국과의 사이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새역모의 '교과서'를 인정하는 것은 일본정부가 세계에 표명하고 약속해온 것을 배반하는 일이며 정부자체가 시행해온 검정제도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검정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검정이 쉽게 되고있는 배경은 지난해 10월 새역모가 집필한 교과서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검정심의 위원회를 이 교과서의 발행처인 산케이신문사가 기사화하여 검정방향을 틀게 한 것이 실마리이다.

두번째로 지난해 12월 모리(森) 내각 개각시에 문화과학대신으로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가 취임한 것이다. 마치무라 대신은 하시모토(橋本) 내각 때에도 문부대신을 역임했는데 현재 검정작업 중인 새역모·산케이신문사·후쇼사 이외의 교과서 검정신청본에서 가해 시점을 교과서 내용에서 후퇴시킨 것은 당시 문부대신이던 그의 지시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새역모의 교과서 채택작전은 교과서의 채택권한에서 현행 교사의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반영시키는 시스템을 배제하여 행정에 집중시키자는 것이다. 새역모는 이를 위해 산케이신문 기사를 리플릿으로 만들어 도쿄시내 및 전국의 지방교육위원 300여명에게 우송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회견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확대시켰다.

새역모가 결성되기 이전에는 후지오카 노부가츠 주도의 자유주의사관연구회가 전면에 나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위장하여 활동했으나 1996년 새역모가 결성되고 부터 차차 종래의 일본회의와 우익 여러단체와의 조직적인 협력과 교차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회의 입장인 전쟁책임 부정은 물론 개헌, 교육개혁, 국기·국가 법제화, 외국인 참정권 반대, 천황제 부활을 내걸고 단체들이 급속히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문제에 법률적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사적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독금법)에는 '자신과 거래하기 위해 경쟁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것을 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교과서협의회도 교육용 기관지 등에는 '신판초·중학교용 교과서에 관한 채택 권유를 위한 선전기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합의하고 있는 것이다. 새역모와 산케이신문사의 교과서 채택작전은 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새역모·산케이신문사·후쇼사에 의한 교과서 공동출판사업이 시작된 당초부터 계획된 최후의 결실물 '국민의 역사'에 대해 언급코자 한다.

'국민의 역사'는 새역모에 의하면 "역사교과서란

한정된 조건에서 충분히 답을 수 없는 시점과 내용, 에피소드 등도 포함해 일반인들도 읽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 작성 목적은 채택의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나 이것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어린 세대들 손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쥐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역사'는 모순된 궤변을 구사하면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문명권으로서 일본열도'라고 하는 당치도 않은 관점을 수립해 나가려는 의도였다. 이 책의 제목은 원래 일본문명의 역사라고 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역사가 아닌 문명의 역사이며 감히 말하자면 일본열도 문명론에 국민을 통합시키고 싶은 책인 것이다.

그 논리의 내부에서 파괴시켜야 될 두개의 폭탄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혼동한 채 화약처럼 내장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국가와 열도, 문명과 문화라는 두 가지 혼동이다. **문**

새로운 역사 수정주의 비판

기미지마 가즈히코

'국민의 역사'나 '역사교과서'는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 '국민의 역사'에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타당하다고 하는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민족에 따라 각각 다르다. 따라서 국가의 수만큼 역사가 있어도 좋다"고 하였다.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역사교과서'의 서두에서 "과거의 상실을 엄밀하고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역사학은 없다고 주장한다.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는 것

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역사교과서'는 커다란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즉 역사는 국가의 역사인가? 또는 민족 또는 개인의 역사인가?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주장한다면 어떤 역사를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확실히 이들은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논리의 비과학성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역사'에서는 일본 열도에 인류의 존재를 오랜 시기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즉

“조몬시대이후 열도에서 인류의 흔적을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또 ‘국민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신화이다”라고 하여 신화와 역사의 경계는 애매하고 어디까지나 역사 기술의 하나의 결과라고 한다. 또한 경계의 애매함은 고대사만이 아니라 현대사도 마찬가지이며 “바로 어제 있었던 큰 전쟁도 오늘 우리 일본인에게도 이미 이해 불가능한 세계가 되어버려서 이제 누구도 가미카제 특공대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교과서’는 대동아전쟁도 자존자위(自存自衛)와 아시아를 구미지배에서 해방하고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교과서’는 어떤가? ‘국민의 역사’와 같이 모든 역사는 신화라고 적은 곳은 없다. 그러나 오비나타 스미오가 황국사관의 재출현이라고 서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교과서와는 완전히 달리 신화에 관한 대량의 기술이 존재한다. 게다가 모든 역사는 신화다라는 주장을 실증하는 것처럼 역사와 신화의 혼돈을 노린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근대사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국민의 역사’에서 막부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묘사한 후 ‘근대 일본이 놓인 입장’이라는 장에서 근대 일본사의 전체를 세가지 점에서 논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대국화(大國化) 역사는 열강의 진출과 동시에 구미열강의 식민지 지배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중국이나 조선은 “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

셋째 일본은 무가사회였기 때문에 “열강의 무력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국과 조선 양국은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은 대응하는데 힘들었다. 또 양국은… 일본을 멸시하는 감정 조차 갖고 있었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서는 일본 무가사회의 우위성과 위기관리를 했던 일본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일합방에 대하여 일본의 조선지배를 영국·미국·러시아가 적절한 것이라고 환영했다고 적고 있는 러일전쟁에서 합방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완전히 기록하고 있지 않다. 침략을 정당화하는 강변만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 식민지배의 실태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역사교과서’는 한일합방이 일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드시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또한 저항투쟁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동아전쟁도 자존자위(自存自衛)와 아시아를 구미지배에서 해방하고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새역모는 정사(正史)를 회복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역사를 시대상으로 묘사하지 않았고 필자의 주장만 줄곧 전개했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을 누락시켰다. 일본의 역사가 어떤 것에 긍지를 가지면 좋을지 극히 어렵게 되어 있다. 시대상과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공허한 긍지가 되어버릴 뿐이다.

일본이란 국가를 무조건 찬미·미화하고 국가에 귀속의식, 천황에 대한 경애심, 봉사·헌신하는 황국사관에 바탕을 둔 배타주의적 국가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근린국가인 중국·한국·북한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정부가 동맹국으로 가장 중시하는 미국에 대해 집요한 적개심을 심는 ‘역사교과서’에 과연 어떤 전망이 있을 것인가?**문**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유도

고시다 다카시

일본이라는 국가 특성에 집착하고 있는 ‘공민교과서’는 일본의 자존심 세우기를 목표로 한 새역모의 ‘역사교과서’ 자매편이다.

집필자의 한 사람인 사에키 게이지는 ‘기폭제로서의 새로운 교과서’로 공민교과서를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종래 문부성에서 검정한 공민분야의 교과서 기술보다 훨씬 심도있는 내용이다.

책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개인의 존엄이나 주권 재민, 그리고 평화주의에 대한 회의나 불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민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즉 일본헌법에 관한 ‘내용’ 및 ‘내용의 취급’에서의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교과서는 평화주의 문제 특히 일본헌법 제 9조의 규정에 대해 본문 가운데서는 그래도 어조를 낮추고 있지만 칼럼란에서는 ‘포기한 것은 침략전쟁일 뿐 자위전쟁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공민교과서’는 현대사회의 많은 병리현상의 원

인, 혹은 오늘날의 정치적·경제적 침체현상은 많은 원인을 근대주의, 진보주의, 민주주의(민중주의), 국세주의(이문화이해), 미국화된 것, 혹은 그런 요소를 매개로 도입한 전후 지식인의 언행 등으로 돌리고 이것의 치유·치방전으로서 역사와 전통에서 배양된 문화·도덕·관습으로의 회귀를 특효약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천황과 정치’ 항에는 “천황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중립·공평·무사의 입장에서 일본을 대표하고 일본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적고 있다. 참으로 전후·전쟁 중의 국정교과서로 오인할 정도의 기술이다.

‘국기·국가’의 항에서는 국기·국가(國歌)는 국가(國家)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역사와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국기와 국가(國歌)를 존중하는 태도와 연관된다.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다른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히노마루를 국기로 하고 기미가요를 국가로 한것은 오

영터리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사기꾼들

다카시마 노부요시

랜 관습이라고 쓰고 있다. ㉔

새역모는 정치적 의도에서 매과 의원들과 상통하므로 그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전국

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항해서 민주적인 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활동도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에스기 사토시와 다카시마 노부요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새역모 등에 의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비판, 공격, 작성한 교과서의 사전 선전, 나아가 전국교육위원회 등 채택관계자에 대한 유인은 독점금지법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며 고발(신고)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새역모와 후쇼사·산케이신문이 1997년 말의 각서에 입각해서 삼자일체가 되어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삼자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고발사건은 신문에 보도되어 전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산케이신문과 새역모는 즉시 반론기사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멋대로 규칙을 무시하고 있는 측의 주장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우에스기와 다카시마 두 사람의 고발이 정확히 그들의 약점을 찔렀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은 발행부수 200만부의 달성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수가 500명을 밀돌던 자유주의사관연구회의 회보에 이 연구회에 대한 이익공여를 시사한 글을 싣고 구독자 소개 요청서를 동봉했다.

이 신문이 새역모에 접근한 것도 같은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의도는 빗나갔고 새역모에 동조한 일련의 캠페인을 벌여도 독자수는 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금년 1월 23일자 조간 2면에 사회기사 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사실을 간결하게 보도하고 이시카와 미즈호 기자가 쓴 2배 분량의 반론을 '회사 홍보부의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게재했다. 이를 보면 홍보부에서는 "산케이신문사는 교과서의 발매·발행자가 아니며 집필에 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시카와 기자도 "실제로 산케이신문은 편집·집필 뿐만 아니라 발행·발매에도 관계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

하고 있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1998년 1월 7일 제1면의 일반기사, 9일의 사설에서 각각 "발매는 후쇼사, 편집작업 및 그 외는 산케이신문도 전면적으로 협력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로 명백한 증거를 그것도 산케이신문 자신이 기사나 사설로 명백히 말한 것까지 합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때 지적한 것인데도 산케이신문은 어쩌서 관계가 없다고 단언한 것일까?

이것은 산케이신문을 신뢰한 독자를 기만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우에스기와 다카시마 두 사람을 포함해서 일반 독자들이 납득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교육문제, 특히 교과서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성격의 신문의 존재가 바람직하다.

산케이신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이외에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화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책임 의무를 회복하기 바란다. 단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보도를 총점검하고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독자나 관계자에게 사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 일본교과서 왜곡 대책반은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수정요구자료」를 만들어 일본측에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국내 관련기관에도 배포했다. 이 책자는 전국 211개 지방문화원에도 배포되어 활용토록 하였다.



섬은 외롭지 않았다

군 LST 함상과 백령면 사무소에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울릉·강화·진도등 전국의 10여개 도서지역 문화 예술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2박3일간 활발한 토론과 질의를 벌였다. 사진은 백령도의 명물 코끼리 바위.

최북단 섬 백령도. '2001, 지역문화의 해'는 도서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과 대안을 토론하기 위해 백령도를 찾았다. 해



섬주민 · 관광객 포괄한 문화시책 개발해야

2박 3일간 백령도서 ‘島嶼지역문화’ 토론

강민철 (월간 우리문화 기자 · mckang@kccf.or.kr)

‘북녘땅 장산곶이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갈 수 없는 망향의 한이 서린 섬, 심청이의 극진한 효심이 파도에 부대끼며 순백색의 포말로 다시 살아나는 섬’ 백령도.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섬은 더이상 외롭지 않았다. ‘2001, 지역문화의 해’(추진위원장 이중한)는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평택항에서 해군 LST함정을 이용해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를 찾아 문화소외지역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도서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과 대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일부 참가자는 교통편이 맞지않아 인천항에서 민간 선박을 타고 입도했다.

국립중앙박물관등 4개 문화 기관·단체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해 열린 이번 행사는 백령도가 속한 옹진군을 비롯한 울릉·강화·진도등 전국의 10여개 도서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추진위에서는 이중한 위원장을 비롯 이종인 상임 추진위원, 김종현·이원태등 추진위원,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 최천식 과장·안



백령도를 방문하기 위해 평택항에 모인 도서지역문화토론회 참가자들이 타고갈 해군 LST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선국사무관·김동욱주사, 채널인 김정기대표·황우광씨, 그리고 사무국 홍성일·김두진 팀장등이 참석했다. 첫날인 29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해군 LST함정을 이용해 백령도로 이동중 해군 함상에서 김종현 추진위원의 사회로 1차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이튿날 군함에서 내린 후 백령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이원태 추진위원의 사회로 2차 토론회를 계속했다.

LST함상에서는 이중한 위원장과 최천식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이 함장 남정욱 중령에게 사과와 초코파이·그림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지역문화 현장 탐방 및 대화'와 연계해 열린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국악원·모던팝스오케스트라등 기존의 찾아가는 문화활동프로그램은 마을주민과 군장병들이 모인 가운데 백령도 주둔 부대인 6여단의 강단과 연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호균 남해문화원 사무국장=문화원에서 육성한 29개 문화단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특화된 문

화행사를 주관해 나가고 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문화의 날'(매년 5월 21일)은 유치원생부터 8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범군민적 문화행사로 뿌리를 내렸다. 남해군의 지원을 받아 연간 2백만명의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가이드도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부터는 1인 1기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3백79명의 문화학교 수강생이 서예·민요·문학·농악·영화등을 배우고 있다. 98년부터는 문화생활화 확립이란 취지로 '새마음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유용문 통영예총 사무국장=우리 고향에 내려오고 있는 남해안별신굿이란 중요무형문화제는 기능보유자나 이수자들이 모두 육지사람들로 섬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전승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섬 주민의 순박함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케 하는 문화정책이 요구된다.

▲김정희 거제예총 사무국장=세계적인 시인인 청마 유치환과 한국 연극계의 대부 동량 유치진을 기리는 '동량·청마 기념관 건립'과 함께 바다의 이미



이중한 추진위원장이 해군 LST함장에게 사과와 초코파이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최천식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이 위원장옆 붉은 티셔츠 입은 이)은 그림을 전달했다. 오른쪽은 해군 LST함상에서 지역문화 현안과 대안에 관한 토론과 발표를 갖고있는 모습.



지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양식을 개발하고 해수욕장마다 '거제바다예술제' 등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기획 창출해 가야 한다. 2년전부터 중단된 '선상문학의 밤'도 다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우종 울릉문화원장=64년에 문화원이 설립됐으나 아직까지 원사 하나 없는 실정이다. 내가 갖고 있는 1천평 부지를 회사해 문화원을 지으려 해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문화공간이라도 소외된 도서벽지부터 건립해야 하고 중소규모의 생활속 문화공간이어야 한다. 도서지역 주민만이 아닌 관광객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시책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해야 한다.

▲이흥국 강화예술문화협의회 회장=지난해부터 '강도(江都)문화제'와 '고인돌 문화축제' '참성단 문화축제'를 '강화도 문화축제'로 통합해 집중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내년도에 강화 제2대교가 개통되면 '강화도 마리산'이 인근도시로 부터 한층 가까워지게 되므로 이곳에 축제의 장을 조성해 공연장·전시장등 영구적인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마리산 자락에 '문화의 마을'을 꾸며 언제든지 예술인들의 작업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형수 옹진군 진촌2리 이장=우리 군은 7개면에 1백 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효녀 심청이의 고향이라는 전설을 고증해 심청각을 지어 2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올해 5월부터는 군비 5천만원을 투자해 심청이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북도섬 벚꽃축제, 연평도 꽃게축제, 백령도 심청제, 대청도 우럭축제, 덕적도 해변축제, 영흥도 포도축제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지수 태안문화원 사무국장=다양한 문화정



△ 도서지역 문화관계자들이 백령면사무소에서 토론과 질의를 벌이고 있다.

보를 제공할 때 포스터의 부착과 관리에 일손이 많이 달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예술홍보지원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예전에 성행했던 안면도의 김생산방식등을 선보여 '볼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편 안면도 주민들은 육지로 나갈 때 교통부담이 크기 때문에 할인공연등 '도서(島嶼) 문화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이재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연구원=섬은 바다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다. 세계적인 해양여행전문록이라 할 일본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와 송의 사진 서공의 '고려도경', 나주출신 최부의 '표해록'은 서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쓴 것이다. 그런가하면 서남해는 '왕건의 길'이자 '삼별초의 길', '이순신의 길'이다. 서남해 도서지역을 포함한 인근 시·군 행정단위의 구성원들이 소경계의 식에서 벗어나 역사적·현재적으로 하나의 해양문화권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

‘진도에 또 하나 고려 있었네’ 지방서 만들어 서울로 내보내

곽 의 진 <진도 · 소설가>

‘예술창작’이란 그 지역의 전통과 민속과 삶의 모습을 담아 새롭게 예술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착안해 민요창극 ‘진도에 또 하나 고려 있었네’를 기획했다. 중앙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기성인들을 투입하지 않은 채 연극 한 번 본적 없고 무대위에 한 번 올라본 적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켰다. 이는 문화예술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닌 직접 창조하는 즐거움을 맛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세의 학생들로부터 68세의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70여명의 배역진이 결정됐다.

때론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은 배우들에게 연출가가 소리지르며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잘 못했다고 고개 숙이며 다시 연습에 임하는 지역민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연출자가 “아무리해도 불

가능한 분은 배역에서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 한 할머니 뒤로 돌아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나 빼볼지 말게 연출가 선생님한테 말씀 잔 잘해주시요이”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해주었다. “아짐, 더 잘하시라고 허는 말씀인게 걱정말고 열심히 하시오”

드디어 2000년 12월 12일 오후 3시30분. 큰 북소리와 함께 서서히 막이 올랐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격려 덕분에 지역언론의 격찬은 물론 중앙언론에까지 화제의 뉴스에 올랐다.

그 결과 국립국악원 50주년 초청작으로 중앙무대에 당당히 서게됐다. 지역문화를 지역민들끼리 운나게 닦아 지역민 스스로 그 문화를 향유하면서 중앙으로 세계로 올려보내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다.



▲**김형배 완도문화원 부원장**=문화원 · 노인복지회관 · 장애인복지회관 · 여성회관 · 청소년회관 · 새마을 운동회관 · 바르게살기운동회관 · 기타 번영회관등 사업비 지원금을 통합해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김기채 고흥문화원 고문**=우리의 조상들이 열과 혼이 깃든 민속자료 하나라도 모으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읍면 단위로 1개씩 만들어져야 한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거나 훌륭한 예술적 소재라 하더라도 활동공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계승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예산 뒷받침은 물론 인력양성 및 공연기획 · 홍보등 종합적인 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김형길 부안문화원 이사**= ‘가장 고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듯이 저마다의 독특한 지방색을 살려야 한다. 이와 맥을 같이해 부안문화원은 내고장 문화유적지를 우선적으로 답사하는 행사계획을 세워 큰 효과를 거뒀다. 부안군은 99km가 바다와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제시 · 정읍시 · 고창군과의 문화권과도 접하고 있어 상호간에 특징을 살리면서 유대하고 보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문화관광사업을 전개하면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회 단오한마당축제를 다녀와서

김두진 (2001,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 팀장)

예부터 우리 민족은 음력 5월 5일을 단오(端午)라 하여 큰 잔치를 지내온다. 현대사회에서 전통 명절은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지역의 연례 문화 행사마당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이번 호에서는 '2001, 지역문화의 해'의 10대 기획 사업 가운데 하나인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제2회 단오한마당축제>를 소개하겠다.

이 축제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영등포공원에서 치러진 행사로, 영등포문화원이 주최하고,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와 영등포구청이 후원하였다. 올해의 단오는 양력으로는 6월 25일이지만 주말인 16일을 골라 앞당겨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한다.

축제는 크게 일반행사와 22개 동대표들의 각종 겨루기행사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일반행사로는 구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풍습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창포물로 머리감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이 있었고, 동대표 겨루기는 씨름, 활쏘기, 닭싸움, 물지게 지고 달리기(남자), 물동이 이고 달리기(여자) 등이 있어 전통 생활문화를 소박하게나마 체험해 보고 추억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짚문화 전시, 차밍디스코, 남도민요, 한국무용, 사진촬영대회, 페이스 페인팅, 어린이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날의 많은 재미있는 행사 중에 압권은 남녀씨름대회였다. 각각 청소년부와 청장년부로 나뉘어 치러졌는데, 모인 사람들이 절로 소리를 지르게 만



드는 역동성이 있었다. 평소에 그런 힘자랑과 몸을 쓰는 일들이 없었으니 모두들 관심도 높고 흥도 겨웠던 모양이다. 저절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응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모르고 살던 주민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편 잔치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 법, 영등포 새마을부녀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을 대접하였다. 주민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공동 작업을 하며 서로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지역

의 음식맛이 이루어져 전승이 되는 것은 지역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문화시설과 향수 기회는 많되 한 지역에 누대에 걸쳐 거주하지 않고 잦은 이사 등으로 지역주민으로서의 주인정신과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대도시 지역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지역문화의 깊이와 폭이 보잘 것 없을 수 있다. 돈벌이에 연연하지 않고 이처럼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동네잔치'가 대도시지역에도 많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포 토 칼 럼

음력 5월 5일은 1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성한 날이라 하여 예로부터 큰 명절로 삼아온다. 한반도를 크게 나눈다면 한강을 기준으로 단오문화권과 추석문화권으로 대별되는데, 대체적으로 발농사를 지내는 지역에서는 단오를, 논농사를 지내는 곳은 추석을 성대히 지낸다. 옛 축제들은 농작물의 파종, 성장, 추수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남쪽에서 추수를 시작할 때 북쪽(또는 발농사지역)에서는 기운이 다르고 작물이 달라 추수할 때가 아니다. 반면 남쪽(또는 논농사지역)에서 단오

는 한창 농번기 때이니 그다지 성대하게 지내지는 않았고, 자연 남쪽은 추석을 중히 여겼다. 또한 5라는 숫자가 북방에서 살던 고대의 여러 민족들이 사회를 편제하고 구성하던 기본 숫자였다고 하니 아무래도 단오는 한반도 북부에서 더욱 의미가 있던 문화였던 듯하다. 이 날은 예로부터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풍습이 전해 온다. 사진은 단오한마당축제 중 창포물로 어린아이의 머리를 씻겨주는 새댁의 모습이다. 아이가 겁을 먹었는지 울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다. 삼푸에만 익숙한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런지...





소식

◎ 하반기 지원사업 발표

지난 6월 8일 추진위는 하반기 지원사업 58건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사업은 59건이 지원하여 36건이,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활성화(지역내·지역간 순회교류) 사업은 62건이 지원하여 22건이 선정되었다.

◎ 국토의 막내 울릉도에서 컨설팅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울릉도의 전국바다낚시축제, 오징어축제, 우산문화제 등 지역축제와 종합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다.

◎ 전남 탐방

‘지역문화현장 탐방 및 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위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영암, 담양, 순천 등지를 탐방하고 각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소규모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사업 하반기 선정 목록

| 지 | 역 | 단 | 체 | 사 | 업 | 명 |
|-----|------|-----------------|---|----------------------------|---|---|
| 서울 | 중구 | 초전섬유퀵드박물관 | | 개관 3주년 기념전시회 | | |
| 서울 | 중구 | 한국창악극진흥원 | |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작은 창극 | | |
| 서울 | 강남구 | 한맥우리소리연구소 | | 우리향토문화한마당잔치 | | |
| 인천 | 남구 | 한국생활사박물관 | | 박물관 문화마당 행사, 축제행사 | | |
| 인천 | 남동구 | 민예총 인천지회 | | 거리의 평화시인들 | | |
| 부산 | 진구 | 남산놀이마당 | | 한여름밤의 우리소리여행 | | |
| 대전 | 서구 | 서구문화원 | | 한발문화제 서구한마당축제 | | |
| 대전 | 중구 | 버드네보쌔움놀이보존회 | | 버드네보쌔움놀이 전승사업 | | |
| 광주 | 동구 | 동구문화원 | | 한국짚풀공예대전 | | |
| 광주 | 북구 | 용전들노래보존회 | | 지산용전들노래발표회 | | |
| 울산 | 북구 | 울산민예총 | | 탈춤놀이 한마당 | | |
| 강원 | 속초 | 설악문화재위원회 | | 설악문화제 기념 풍물겨루기마당 | | |
| 강원 | 영월 | 영월문화원 | | 종합전시회 | | |
| 강원 | 원주 | 숲과 마을 미술축전준비위원회 | | 숲과 마을 미술축전 | | |
| 경기 | 부천 | 부천문화유적 탐방 | | 부천역사문화재단 | | |
| 경기 | 고양 | 극단 남비곰비 | | 고양시 어린이를 위한 2001 삼승 작은마을축제 | | |
| 경기 | 의정부 | 의정부문화원 | | 정주당놀이 전승 재현 | | |
| 충남 | 논산 | 충남지역문화연구소 | | 지역문화 심포지움 | | |
| 충남 | 홍성 | 청년풍물패 '하늘' | | 풍물공연 "풍물의 역사와 기원을 찾아" | | |
| 충남 | 당진 | 상록문화제집행위 | | 상록문화제 | | |
| 충남 | 서천 | 기벌포문화예술원 | | 기벌포예술제 | | |
| 전남 | 목포 | 민예총 목포지부 | | 삼학도대동장승굿 | | |
| 전남 | 목포 | 청해환경예술연구소 | | 전통방선 복원을 위한 기초 발굴조사 연구 | | |
| 전남 | 신안 | 하의초등학교 | | 하의연지방아놀이 | | |
| 전남 | 진도 | 소포리세시풍속놀이보존회 | | 소포마을세시풍속놀이 | | |
| 전남 | 진도 | 진도문화원 | | 덕병리장승제 | | |
| 전남 | 나주 | 나주시랑청년회 | |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기행 | | |
| 경북 | 영주 | 영주문화연구원 | | 아! 순흥 문화마을을내리축제 | | |
| 경북 | 칠곡 | 왜관YMCA | | 아이들이 만드는 축제' 방과후 이야기' | | |
| 경북 | 김천 | 김천문화원 | | 삼도봉 만남의 날 | | |
| 제주 | 제주시청 | 제주시청 | | 마을별 민속문화예술특장화사업 | | |
| 제주 | | 제주문화원 | | 제주민요 근잔치 | | |
| 북제주 | | 북제주군 | | 고산노을축제 | | |
| 북제주 | | 동굴소리연구회 | | 동굴음악제 | | |
| 서귀포 | | 음향 서귀포지부 | | 서귀포여름음악축제 | | |
| 남제주 | | 성읍 1리 | | 정의골 민속한마당대축제 | | |

관광진흥은 우리 모두의 '과제' 도로안내·차림표 불편 없어야



박 양 우 |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5월의 인천국제공항은 하늘만큼이나 맑고 고왔다. 그리고 자랑스러웠다.

우리의 최대 관광시장인 일본지역 관광관측과 올 9월 서울과 오사카에서 공동으로 열리는 세계관광기구(WTO)총회 실무 협의차 공항을 나선 우리 일행은 너나 할 것 없이 새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팬이 돼 버렸다.

개항전 제대로 준비가 안되었네 어쩌네 하면서 언론에서 크게 우려했지만 인천공항은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참 잘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나 할까. 이렇게 자랑스런 인천공항도 관광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좀 있다. 관광종합안내소를 건물 양쪽 끝자락에 배치함으로써 안내를 원하는 관광객의 접근이 쉽지 않고, 그나마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지판도 적어 이를 찾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입국자들을 위한 버스노선 종합전광판이나 안내판이 보강된다면 이용하는데 한결 쉽고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항측의 그간의 노력과 수고를 깎아내리려는 뜻이 아니다. 손님맞이 측면에서 좀더 숙고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다.

월드컵·아시안 게임 대비 손님맞이 점검 할 때

올해는 아다시피 '한국방문의 해'다. 내년에 있을 '2002 월드컵축구대회'나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정부와 관광업계, 그리고 온 국민이 우리의 손님맞이 실태를 점검하고 또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제정한 것이다.

관광산업은 종합산업이다. 관광지를 단장하고 관광객이 쉽게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과 교통수단을 확충하며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를 개발하는 일,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우리의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 손님맞이 태세를 제대로 갖추는 일 등 어느 것 하나 정부·업계·국민간에 얽혀있지 않은 것이 없다.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개발 필요

그래서 관광선진국이 되는 일은 정부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더군다나 문화관광부만의 노력으로 관광산업의 진흥을 꾀하기란 정말이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정부 내의 모든 부처가, 온 관광업계가, 나아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광마인드를 가질 때 비로소 관광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인천공항의 예를 들었지만 관광의식으로 다듬어야 할 대상은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 공항 근무자나 택시·버스기사 문제에서부터 전철역의 역 이름 표기 및 방향표시, 시내의 도로안내판, 음식점의 차림표 등 외국관광객들이 흔히 지적하는 불편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관광산업진흥이 국정지표가 되어 어엿한 국가기간산업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소비·향락산업 정도로 폄하되어 금융·세계·토지이용 등에서 아직까지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부창출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광진흥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한양의 용문화 오방토룡제에 대한 연구 ㉓

국왕은 정전을 피하여 밖에서 정무를 보았으며, 반찬의 가짓수도 줄였다. 이것은 나라에 가뭄이나 흉수등 천재지변이 있는 것은 먼저 국왕과 조정대신들이 덕이 없어 정치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죄수들을 자세히 심리하여 원통하게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이러한 진휼책으로는, 특히 女怨이 三年枯旱이라는 말이 있어서, 영원을 푸는 논의를 보이고, 또 음양불화는 招旱하는 바가 된다고 가난한 집 처녀들의 혼인비용을 도운 기록들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고려·조선시대의 4, 5월의 일들이었다. 위의 근신은 민간에도 미쳐서 도살을 금하고, 술과 풍악도 금하였다. 또 특히 장터에서는 더위를 피하여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부채질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것은 양산은 강우를 기피하는 상징성을 내포한 것이어서 금지하고,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니 구름을 쫓는다는 상징성 때문에 금지된 듯하다는 해석도 있다.

(6) 조선시대의 기우

조선시대에도 기우제는 잦았다.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기우제가 4월(음력)에서 7월 사이의 연중행사임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태종 재위 18년간 기우제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은 1403년(태종3년) 한 해뿐이었다. 기타 17년 동안은 해마다 2-3회씩, 16년 한해 동안에는 9회의 기우제 기록이 보인다. 또 반대로 이 18년간 6회의 祈請祭 기록도 보이는데, 이는 장마철인 6, 7월 사이에 행해진 것이었다. 세종실록 30년 5월 1일(을유) 기사를 살펴보면 시장을 율기고 용신에게 기우하며 영제를 지낸 古代 이래로 전형적인 내용이 보인다.

“저자를 율기고 오방토룡에 제사하고, 京城의 各戶로 하여금 문에 제사하게 하다”

또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시대에는 기설제의 기록도 보인다. 물론 기우제에



김영섭(金榮燮)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동대문문화원 원장. 청룡문화재보존위원회위원장.
저서로 『이것이 침향이다』 外

비하면 매우 드문 편이지만 11월, 12월에 가끔 보인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기를 빌고 풍년을 염원하던 농본국의 중농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순조실록 11년 5월 2일(기묘)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교하기를,

“모래부터 오방토룡제를 지내도록 하되, 육갑에서 각각 1일과 5일에 하라. 연달아 차례로 기우제를 지내는 나머지에도 끝내 하늘의 감응이 없으니, 민사를 생각할 때 매우 막막하다. 자신을 책망하기를 의당 극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오늘부터 6일 동안 減膳하고 정전을 피하여 광명전의 宇內別堂으로 移御해서 공손히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승지는 상의원에 이접하도록 하며, 철악은 정전으로 환어할 때까지로 제한하고 경연은 소대로 대신하게 하되 역시 비가 내릴 때까지 기한을 삼도록 하라.”

위와 같이 조선왕조 전반에 걸쳐 많은 사례를 보이는 국왕의 근신 사례들은 왕도정치 구현과 연관이 있으며 또 그것은 자연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선인들의 겸허한 마음가짐의 한 기반이 되었다. 기우제로 고려시대 이래의 취무도우도 많았고, 승려나盲瞽들을 모아서 비를 빈 기록들도 있다. 물론 지방관청이나 민간에서도 기우제는 매우 다양했다.

4. 오방토룡제에 관한 공식적 이해

유교의 예제가 정착된 이후 민간의 일반적 祈禱, 祈禱행사는 조선왕조의 국가사전에 편입되지 않았다.

성리학의 이지적 가치관과 그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전대에 비하여, 잡다한 자연신에 대한 몰입적 신앙의 관념을 어느 정도 지양하여 그 왕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현상을 어루만지고 예우하는 치제 관념의 표현형태로 제도화되었다. 가령 전대에는 없었던 여제를 신설

하여 의탁할 데 없는 백신에 대한 제사를 제도화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그같은 사례에 속한다. 특히 조선왕조에서는 사직단, 성황단, 여단을 중앙은 물론 지방 각 군현에서도 이른바 삼단이라 하여 정기적으로 치제하도록 제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신, 곡신, 국토수호신 등 왕토 안의 어떠한 무주백신도 국가제사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전국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오방토룡제 또한 조선왕조의 성립 이후 국가사전에 편입된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과 경국대전상의 각종 법령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고민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오방토룡제가 국조오례의의 제사 규정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오방토룡제는 기우의 마지막 수단이다. 더 이상 國行祭儀가 효험이 없음으로 오방토룡제가 거행된다. 중종실록 32년 4월 26일(갑술) 기사는 간절한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난다.

“옛적 제왕들이 비를 비는 일을 모두 해보면서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근본인 농사를 힘쓰기 위해서였다. 먹을 것은 백성들의 하늘인데, 백성들이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이번에 한재가 생기게 된 까닭은 오로지 내가 덕이 없는 소치이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밭과 들판이 갈라져서 썩건 땅이 천리나 될 것이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요사이 오방토룡제를 하려고 하려고 하는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첫째, 오방토룡제의 특징은 민관이 모두 동원되어 지내는 제사이며 둘째, 오랜 기간 동안 전승되어온 민간풍속으로 오례의에 포함시키기가 불가능한 요소 즉, 제사의 형태가 유불선을 모두포함하고 있고 다양함으로 인하여 유교적 예제로의 수용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셋째, 조선시대에 있어서 용은 왕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 있었고 이러한 금기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오방토룡제는 태종 14년 6월 동

교에서 토룡제를 지낸 이후 고종 43년 6월 용산강과 저자도의 화룡기우까지 계속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다. 조선왕조시대에 국행기우, 민간기우로 가장 성행하던 제사가 오방토룡제이다.

1) 사료의 오방토룡제 관련 자료분석

오방토룡제에 관한 조정의 건의와 토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오방토룡제는 예조의 건의로 시작되며 한발이 극도로 심해졌을 때 시행되는 제사였다. 숙종실록 1년 7월 4일(경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관원을 보내어 토룡에 제사를 올려 비를 빌었다.”

이 기사에 나타나듯이 심한 가뭄이 오방토룡제의 원인이 된다. 조선초기에 오방토룡제는 제사의식의 규격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나 차츰 문헌의 근거를 인용하여 오방토룡제에 관한 규격들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중종실록 32년 4월 26일(갑술) 기사는 斯文類聚의 기록을 인용하였는데 기사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1. 五方土龍祭의 規格

| 祭祀位置 | 施行日時 | 祈雨對象 | 舞人 |
|------|------|------|----|
| 東方 | 甲乙日 | 靑龍 | 小童 |
| 南方 | 丙丁日 | 赤龍 | 壯者 |
| 中央 | 戊己日 | 黃龍 | 壯者 |
| 西方 | 庚申日 | 白龍 | 老人 |
| 北方 | 壬癸日 | 黑龍 | 老人 |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위 기사가 도교의식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기사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서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실록이 민간의 풍속을 전하는 기능이 없었으며 당시의 유교적 분위기에서 민간대중속에 집중적으

로 뿌리내리기 전에는 정례화, 또는 정착할 수 없었던 전승의 한계가 었보인다. 또한 민간의 풍속적 의식이 국가의 제지를 받게 된다.

記事1. “대저 토룡제는 기우제에 있어 극진한 것이지만 鞭籠하는데 이르러서는 褻慢스럽기 그지없으니, 이뒤로는 일체 제거하라”

記事2. “임금께서 말하기를 듣건대 기우제를 지낼 때는 籠을 그려서 제사를 지내며 제사가 끝나면 그 종이로 제물을 싸서 강물 中流에다 가라앉힌다고 하는데, 비록 토룡제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신을 업신여기는 것은 심한 편이다. 기우제의 童子祝은 거의 윤리가 없기 때문에 어제에 이미 기재를 하였는데, 더구나 이것이겠는가? 지금부터 시작하여 용을 그린 종지와 축문은 ‘다른 제사 의식에서’ 축문을 불사르는 일과 같이 하도록 기록하여 규정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유교의 예제는 성리학적인 세계관을 반영하며 이 지적이고 합리적 사유체계를 중시한다. 영조실록의 두 기사는 조선왕조 예제의 정형성을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의식에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요소들 즉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측면들을 제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오방토룡제의 정립

오방토룡제가 國家祀典의 국행기우로의 정립은 기우제의 순서가 정해지고 법전에 수록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국가가 국왕친행 또는 국왕을 대신하여 관리를 파견해서 지내는 기우제의 순서는 조선 중기에 이르러 완전히 정해지고 영조조에 이르러 의식절차가 정비되고 속대전과 대전회통등 법전에 편입되면서부터 정립된다. 즉, 신라 진흥왕시대의 畫龍祈雨에서 시작하여 고려를 거치고 조선시대 태종·세종조에 활성화된 오방토룡제가 완전히 국가제사로서 공인을 받음을 의미한다. 속대전의

12차의 국행기우제를 거행하는 규범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참고〉

이 기록은 조선초기 성현(1439~1504)의 『용재총화』에 보이는 기우지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나, 이궁익의 연려실기술 12차 기우제와 동일하다.

이것은 국행기우제이니 물론 유교식이 앞선 것이기는 하나, 한강에 호두를 넣었다든가 석척동자의 기우 등 주술성이 많이 혼합되어 있다. 오방토룡제의 시일은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 정리된다. 순조실록 11년 5월 2일(기묘)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조에서 이퇴기를 “오방토룡제를 육갑에서 각각 1일과 5일에 지내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서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

당하며 초 3일인 경일에는 백룡이 조성되니 초4일인 신일에 설행하게 하고, 북방은 초5일인 임일에 흑룡이 조성되니 초6일인 계일에 설행하도록 하며, 동방은 초7일인 갑일에 청룡이 조성되니 초8일인 을일에 설행하게 하며, 남방은 초9일인 병일에 적룡이 조성되니 초10일인 정일에 설행하도록 하고, 중앙은 11일인 무일에 황룡이 조성되니 12일인 사일에 설행하게 하되, 전례대로 3품의 관원을 보내어 매일 양제를 설행하는 일을 지휘하소서.”하니, 윤택 하였다.

위의 실록記事 이후 오방토룡제의 규격에 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아 국행기우제로서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2. 朝鮮時代 國行祈雨祭 分析表

| 次例 | 祈雨場所 | 派遣官吏等級 | 特定祈雨方法 | 備考 |
|-----|--------------|--------------------|---------------------------|-----------------------------|
| 一次 | 三角山, 木覓山, 漢江 | 堂下三品官 | | |
| 二次 | 龍山江, 楮子島 | 從二品官 | | |
| 三次 | 風雲雷雨, 山川, 雩祀 | 從二品官 | | |
| 四次 | 北郊, 社稷 | 北郊-從二品官 社稷-正二品官 | | |
| 五次 | 宗廟 | 正二品官 | | |
| 六次 | 三角山, 木覓山, 漢江 | 近侍官 | 漢江에 虎頭를 넣음 | 三角山 2次 木覓山 2次 漢江 2次 |
| 七次 | 龍山江, 楮子島 | 正二品官 | | 龍山江 2次 楮子島 2次 風雲雷雨 2次 |
| 八次 | 風雲雷雨, 山川, 雩祀 | 正二品官 | | 山川 2次 雩祀 2次 |
| 九次 | 北郊 | 慕華館-武從二品官 | 蜥蜴童子 祈雨 | 北郊 2次 |
| 十次 | 社稷, 慶會樓 | 社稷-議政 慶會樓-武從二品官 | 蜥蜴童子 祈雨 | 社稷 2次 |
| 十一次 | 宗廟, 春塘池 | 宗廟-議政 春塘池-武從二品官 | 蜥蜴童子 祈雨, 南門을 닫고 北門을 열고 遷市 | 宗廟 2次 |
| 十二次 | 五方土龍祭 | 堂下三品官 | | |

3) 오방토룡제의 진행

오방토룡제는 국왕의 전교에 의해 실시된다. 아래 <표3>의 기록은 태종, 세종, 숙종, 영조, 순조실록의 기사를 정리한 결과이다.

<표3참고>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조선시대에 특히 많이 거행되었던 오방토룡제는 다음과 같이 의식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① 토룡단을 조성하고, 용을 그려 붙이거나 용의 형상을 만들어놓는다.(용의 크기는 60cm에서 20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몸뚱이는 통나무에 짚을 감고 흙을 바르고 청색으로 비늘을 그린다.

② 국가에서 과전된 관리가 유교식 제의를 수행한다. 제사가 끝난 뒤, 용의 머리 쪽에서는 무녀들이 굿을 하고, 몸뚱이 쪽에서는 관수들이 독경을 하고, 꼬리 쪽에서는 승려들이 염불을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비와 구름을 지배하는 용의 영력이 발휘되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③ 백성들은 편을갈라 줄다리기를 하거나 기우와 관련된 놀이 또는 풍속을 행한다.

4) 일제 강점기 오방토룡제의 말살에 대한 분석

우리는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유형의 문화재를 수탈당함과 동시에 창씨개명 언어 등 무형의 문화 역시 말살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였다. 일본은 이미 조선의 풍수지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여 그 맥을 끊기 위한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정기가 서린 산마다 쇠말뚝을 박는가 하면 한양의 좌청룡 줄기인 흥인지문과 시구문 사이의 조산을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밟을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로써 한양의 명경지수인 청계천의 준설을 막아 오염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용 문화를 말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은 우리의 궁궐을 고의적으로 철거하거나 변형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창경궁에 동물원을 만들고 공원으로 전락시켰을 뿐 아니라 조선의 정궁으로 쓰인 창덕궁앞의 마을 이름을 와룡동(臥龍洞)이라고 개명하여 용에 비유된 조선의 임금을 쓰러뜨리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만행은 비단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일제는 한국에서의 용과 관련된 문화를 말살하는 데 혈안이 되었었음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보인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의 검두(劍頭) 마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원래 이름은 용두(龍頭)마을이었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조정을 빌미로 용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칼끝을 뜻하는 검두리라고 개명하였다는 것이다. 칼끝은 불안과 위협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의 선농단이 있는 곳에 우사단과 오방토룡단 중 동방토룡단이 함께

표3 . 오방토룡제 정리표

| 기사 분류 | 동방청룡단 | 서방토룡단 | 남방토룡단 | 북방토룡단 | 중앙토룡단 | 합 계 |
|-------|-------|-------|-------|-------|-------|-----|
| 태종실록 | 2 | 3 | 2 | 1 | 2 | 10 |
| 세종실록 | 9 | 8 | 8 | 6 | 8 | 39 |
| 숙종실록 | 2 | 2 | 2 | 2 | 2 | 10 |
| 영조실록 | 1 | 1 | 1 | 1 | 1 | 5 |
| 순조실록 | | 1 | 1 | 1 | | 2 |
| 합 계 | 14 | 15 | 11 | 11 | 13 | 66 |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명분상 선농단만을 제외하고 모두 없애버렸으며, 그곳조차도 청량대라는 이름으로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사범학교를 지어 명분을 희석시킨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제가 특별히 용과 관련된 지명이나 문화 등을 말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오방토룡단 역시 같은 맥락으로 국가에 가뭄이 들었을 때 전국 산천에 기우를 지내고 나서도 효험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기우를 지낸 곳이 바로 오방토룡단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농사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과학이 덜 발달되었던 시대에 하늘의 힘을 빌어 기후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미래지향의 제사처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사의 풍년을 비는 선농단은 명분상 존치시켰지만 그 제사행위는 없애버렸으며 그보다 근원을 이루는 우사단과 동방토룡단을 비롯한 오방토룡단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린 것은 미래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기후, 환경 등에 대한 기(氣)를 차단하고자 한 행위로 해석 될 수 있는 것이다.

5. 오방 토룡제를 대표하는 동방토룡제

1) 동방토룡제의 비중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농경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면 전국의 산천에 기우제를 지냈다. 그러기를 열한 차례 행하고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열두 번째 오방토룡에 기우를 빌었는데 실록의 여러 부분에서 오방토룡제 이후 비가 내렸다는 기사가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으며 심지어 오방토룡단 제사후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이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살피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필자는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곳에서 오방토룡제를 거행했던 사실을 찾았고 그중 가장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선농단 옆의 동방토룡단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른 것이며 동방토룡단에 준하여 나머지 서·남·북·중앙의 토룡단으로도 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록의 기사로 미루어 각 토룡단의 위치를 유추해낼 수는 있지만 실제 정확한 위치와 제단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중앙의 경우 종각부근에 있었다고 전하지만 실제로는 상설단(常設壇)이 아니며 필요시 설치하여 제사를 올렸다는 것도 미루어 짐작이 된다.

때문에 현재로써는 선농단 주변의 동방토룡단만이 가장 확실한 사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방토룡단의 중요성은 나머지 네 개의 토룡단의 존재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필자의 견해도 제사의 형식이나 제단의 규격 등은 모두 같기 때문에 구태여 모두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대강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다고 보며 그만큼 동방토룡단이 오방토룡단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오방토룡제를 대신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 동방토룡단의 입지적 연구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동방토룡단은 홍인문 밖 3리의 평촌에 선농단과 우사단 주변에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농단이 있는 곳은 현재 행정구역상 동대문구 제기동이며 이곳은 한양의 명경지수인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정릉천의 말미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과거에는 용두(龍頭)리였었다.

우리나라 산의 발원은 중국의 태조산(太祖山)인 곤륜산(崑崙山)과 맥을 연결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곤륜(崑崙)에서 백두(白頭)로 이어지고,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정맥이 우리나라의 하천은 중국과는 달리 대부분 서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는 산간내륙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의 산천은 백두대간이 달려오다가 분수산(강원도 회양)에서 갈라져 나와 대성산과, 포천군 이동

의 백운산, 가평군의 청계산, 현등산을 거쳐 양주의 주엽산에 이르고, 갈라진 또 한줄기는 수락산, 불암산을 거쳐 구룡산, 아차산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한줄기는 불곡산, 홍복산을 거쳐 도봉산, 북한산에 이르러 서울의 주산(主山)인 북악산(北岳山)을 일으켜 백두정맥의 기를 받아들였다 한다.

북악산(北岳山)을 중심으로 청룡맥(靑龍脈)은 동쪽의 낙산맥이며 그 바깥은 성북동에서 갈라져 미아리고개에서 쳐졌다가 종암동에서 정릉천과 멈추어서서 외청룡맥이 되었다. 서울의 우측 백호(右白虎)는 북악산에서 자하문을 지나, 인왕산으로 연결되는 맥(脈)이다. 북악의 맥이 청룡으로 흘러내려 멈춘 곳이 청계천이며 서울의 명당수(明堂水)가 된다.

청계천은 사대문 안의 골골을 흐르는 물이 모이므로 주인이 사는 명당의 물을 모은 명당수이며 한강(漢江)은 서울 바깥의 물을 모은 손님물, 즉 객수(客水)가 되는 것이다. 도읍지는 龍의 맥이 천리를 끊임 없이 이어져 내려와야 한다고 하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위치는 일국의 용이 다 모였다는 명당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어내린 용의 기가 모아진 곳이 바로 경복궁 안 근정전 용상이 놓여진 위치라고도 전한다.

서울의 主山인 북악산(北岳山)이 태조산(太祖山)인 백두(白頭)에서 중조산(中祖山)인 강원도 철령을 거쳐 근조산(近祖山)인 북한산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좌측(左側)으로 청룡 줄기의 흐름이 멈추고 마감되는 곳이 청계천으로 정릉천이 들어가는 용두동 근방이며 이 동네를 감싼 주위 산의 모습이 용머리와 같이 생겼다 하여 그 이름이 龍머리 또는 龍頭里라고 붙여진 것이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당시의 행정구역사를 보면 한성부(漢城府) 동서(東署) 인창방(仁昌坊)(성외) 동소문 외계의 용두리(龍頭里)라고 되어 있었다.(漢城府, 東署 仁昌坊(城外) 東小門, 外契의 龍頭里). 이후에 용두리는 고양군 인창면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 3월에는 경기도 도내 각면의 명칭과 구역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때 성밖의

지역이었으므로 고양군 승인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일제때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경성부(京城府)의 관할구역에 확장할 때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위치적 조건으로 보아 동방토룡단을 자리 잡게 한 것은 풍수지리를 숭상하던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건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이다.

6. 結語

용 문화를 통한 환경문제의 인식과 오방토룡제 중 동방토룡제 복원의 의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환경문제라는 데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될 수 없을 것이다. 환경문제는 그 성격이 매우 包括的이고 抽象的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은 극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또한 추상적인 수준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간의 인식수준과 관계없이 우리가 처한 환경의 문제는 이 순간에도 매우 심각하게 우리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근일에 남부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금년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촌로의 말에 반문하기를 지하수를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현명한 충고를 하였다. 촌로의 대답은 지하수가 이미 고갈되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93년 UN의 국제 인구행동연구소(PAI :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군으로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1,470m³으로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연간 1인당 1,000m³ 미만은 물 기근 국가, 1,000m³~1,700m³은 물 부족 국가, 1,700m³ 이상은 물 풍요 국가로 분류된다고 한다. 금년도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대책에서도 2006년부터 물 부족이 전망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수량(1,274mm)은 세계 평균(973mm)의 1.3배에 이르지

만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연간 평균 강수량(2,755mm)은 세계 평균(22,096mm)의 12.5%에 불과하며,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2011년부터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물 기근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가 20개국, 물 부족 국가군에 해당되는 나라는 8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한다.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은 하나의 거대한有機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자연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 폐해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결과 이제 환경문제는 핵무기의 위협보다도 더욱 현실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되었다. 오늘날에 환경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이 생활하기에 가장 쾌적한 환경인가 하는 등의 수준에서 논의될 때는 이미 지났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생존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절박하고도 시급한 차원의 문제이다. 현대사회의 문제인 환경문제를 전통적 사유체계 속에서 용해해낸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과학이, 그리고 이에 바탕한 산업의 발전이 인간의 자연에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한다면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는 人間과 自然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최근 들어 환경문제를 더불어 '環境倫理'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古代社會의 성립시기부터 줄곧 農耕文化를 유지해온 아시아권 국가들, 특히 동북文化圈에 속하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에 있어 자연은 그 어느 문화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의 변화와 운행은 농사를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었다. 사계절의 순조로운 변화와 적절한 햇빛과 降雨 등은 성공적인 농사를 위한 기본 전제였으며, 농사에 투여

되는 인간의 노동력은 이같은 자연의 운행과 변화에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춰줌으로써 비로소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순조실록 11년 5월 7일(갑신) 기사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애타게 바라던 나머지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민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油雲이 풀리지 않고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치지 않으니 두루 흡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토룡제를 지금 잠시 중지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위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통해보더라도 인간과 자연은 항상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자연의 기운을 얻어 태어난 이상 자연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만물은 나와 더불어 삶을 공유하는 존재인 것이다. 환경문제를 관련하여 오방토룡제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조화와 공존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는 사실이다. 용에게 제사를 지내 강우를 기원하였다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사실을 넘어서 인간이 만물과 함께 공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방토룡제가 오늘날에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모티브라고 판단된다.

전통적인 문화의 편린들이 환경문제 역시 자연을 인간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인간과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의 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방토룡제를 복원 계승해나가는 일은 지극히 과학적인 사고를 토대로 우리의 말살되었던 전통문화를 다시 살리는 일 외에도 한국, 그것도 수도권 과거의 한양에서 행해진 용 문화를 다시 살려 중국과 동남아는 물론 일본에조차 내세울수 없이 뒤떨어진 용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고케하며 나아가 중종실록에 나온바 대로 관련된 이벤트를 개발 우리의 전통문화상품으로의 발전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끝>

은 장 도

편집부



장도(粧刀)는 호신용 칼이다. 허리띠나 옷섭 안에 노리개와 함께 달아 차고 다니기 때문에 패도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부녀자들은 위험을 당했을 때 몸을 보호하고 심하면 목숨을 끊어 절개를 지키는 도덕적 미덕의 상징으로 이것을 지니고 다녔다. 조선시대 장도는 주로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장도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장도의 역사

이 칼의 역사는 매우 깊어 우리나라의 경우 신석기 시대에 석도(石刀)장신구로 차고 다녔다. 이 습관은 청동기 및 철기시대에 와서도 계속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사람들은 도려를 차고 이로써 등급을 나타냈다고 한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오자도는 도려를 분판 것이다.

고려 때도 칼에 따라 여러 모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국으로 보내는 품목중에 보이는데 그 종류를 들어보면 장도(長刀)·검(劍)·장검(長劍)을 비롯해 조각장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 많았음을 고려사에서 엿볼 수 있다.

장도는 매우 장식적이다. 패용으로 노리개와 함께 옷섭에 차고 다녔는데 조선시대의 장도는 대부

분 세공 조각장들이 제작하였으며 지금의 서울 광교부근에 장도를 만드는 세공방이 많았다.

장도는 전체의 길이가 5치, 칼의 길이는 1치4푼이다.

장도의 종류

장도는 칼자루와 칼집이 은장식의 꾸밈새에 따라 다양한 장식과 맛배기로 나뉜다. 맛배기에는 평맷배기와 을자(乙字) 맛배기가 있다. 평맷배기는 칼자루와 칼집이 원통형이고 을자맛배기는 乙자꼴로 되어 있다. 이밖에 사모장도라 불리는 네모지고 첩사가 따른 첩사칼 칼집과 칼자루가 여덟 모로된 모쟁이칼이 있다. 모쟁이칼을 팔모장도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두 형태상의 명칭이다.

재료와 제작 도구

장도제작의 재료와 도구는 칼집과 칼자루가 한가지 재료로 이루어진다. 장식은 대칭적이며 고리가 달리는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장도에 많이 쓰이는 목재는 떡감나무, 대추나무, 화류나무이고 장식용으로는 산호와 은, 백동, 강철이 쓰이며 쇠뿔이 소용된다.

장도(粧刀)는 호신용 칼이다. 허리띠나 옷섭 안에 노리개와 함께 달아 차고 다니기 때문에 때ど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부녀자들은 위험을 당했을 때 몸을 보호하고 심하면 목숨을 끊어 절개를 지키는 도덕적 미덕의 상징으로 이것을 지니고 다녔다. 조선시대 장도는 주로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장도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는 활비비로 둥근 구멍을 뚫고 칼자루와 칼집에 맞도록 만드는데 쓰이는 톱이 있으며 여러 장식모양에 달라 틀을 사용하고 나무자루와 칼집에 맞도록 만드는데 쓰이는 보대가 있다. 또 쇠붙이를 다듬는 줄도 있다. 이외에도 망치, 가위, 송곳 등이 필요하다.

장도의 제작과정

장도는 칼자루·칼집·장식·칼날의 조립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칼자루는 먹감나무와 대추나무 또는 쇠골을 깎아 장도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자르고 다듬어 칼자루와 같게 한다.

칼자루는 칼이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구멍을 파야 한다.

활비비로 먼저 톱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구멍을 판다. 이 파진 구멍에 의지해 톱질을 하며 칼날의 단면이 역삼각형(逆三角形)이므로 톱질로 이런 구멍을 파내게 되어 있다. 이때 칼날이 헐겁지도 죄이지도 않게 구멍을 파내어야 한다.

칼집과 칼자루는 사포나 가죽으로 잘 문질러서 윤기나게 한다. 은 백동으로 무늬판을 만들어 장식한다. 장식 중 갖은장식이 가장 화려한데 갖은 장식은 칼집 부분의 아래로부터 태극을 새긴 원장식을 하며, 장식을 구리못으로 죄기 위한 국화를 놓고 그 위에 납땜으로 왕막이를 한다. 그러나 맞배기에는 왕막이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왕막이 밑으로 원장식의 등에 메뚜기를 납땜하고 고리를 단다. 장도의 장식은 주석7에 니



△ 은장도와 노리개(왼쪽) 은장도(오른쪽)

켈3을 배합한 백동(白銅)을 불에 달구어 망치로 때려 늘여서 쓴다. 장식이라 하면 으레 백동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고, 백동 대신 은(銀)을 이용하는 예는 매우 희귀하다. 오동(烏銅)장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칼날은 시우쇠(강철)를 20여 번 불에 달구어 두들겨 만든다.

단단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 불에 달구어 망치로 두들기며 날이 서로록 단련한다. 칼의 단련이 끝나면 줄로 밀어 거친 부분을 다듬고 칼날을 세운다. 칼몸에 일편단심(一片丹心) 등의 문자를 새기고 불에 달구어 기름에 담가 열처리를 한다. 이 일이 끝나면 숫돌에 갈아 광을 내고 날을 세워 날카롭게 한 후 각기 만들어진 부분을 조립하고 칼자루와 칼집에 알맞는 장식을 하고 구리못으로 부착시키면 완전한 장도가 이루어진다. ㉞



流頭와 三伏

박 후 식 |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유두(流頭)

음력 6월 15일을 유두라고 하는데 명절의 하나다. 이 날은 일가 친지들이 맑은 시내나 산간 폭포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은 후 장만해가지고간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서늘하게 지낸다. 이것을 유두잔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 질병을 물리치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같은 유두

▽ 복중에 먹는 삼계탕



잔치 풍습은 신라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회종 때의 학자 김극기(金克己)의 「김거사집」에 동도(東都)의 풍속에 6월 15일 동류수(東流水)에 머리를 감아 액을 떨어버리고 술마시고 놀면서 잔치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중경지」권2 풍속조에 보이고 「고려사」명종15년 조에는 6월 병인(丙寅)에 시어사(侍御史) 두 사람이 환관과 더불어 광진사(廣眞寺)에 모여 유두음(流頭飲)을 마련하였는데 나라 풍속은 이달 15일 동류수에 머리 감아 불상(不祥)을 없애며 이 회음(會飲)을 유두음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것은 동쪽이 청(靑)이며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곳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유두」란 일반적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준말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

다. 소두(梳頭), 수도(水頭)라고도 표기하였는데 수도란 물마리(마리는 머리의 고어)로서 물맞이라는 뜻이다.

오늘날에는 신라의 고토인 경상도지방에서 유두를 물맞이라고 부른다. 이날 아침 각 가정에서는 유두면, 유두병, 수란, 건단, 그리고 피·조·벼·콩 등 여러 가지 곡식을 새로 나온 과일과 같이 사당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유두천신이라 하며 농가에서는 농사가 잘 되게 하여 달라고 농신(農神)에게도 고사를 지낸다.

「동국세시기」6월 월내조에는 피·기장·벼를 종묘에 올리는데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중하(仲夏)의 달에 농촌에서 기장을 진상하면 천자가 맛을 보고 먼저 종묘에 올렸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이날 사당에 유두천신을 하고나서 한 집안 식구가 단란하게 모여 여러 가지 유두음식을 먹는다. 특히 밀가루로 만드는 유두면은 찰밀의 누룩으로 만들 경우 유두국이라고도 하였는데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 5색으로 물들인 후 세 개씩 포개어 색실에 꿰어 몸에 차거나 문위에 매달면 재앙을 막는다고 하였다.



삼복(三伏)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을 가르켜 삼복이라 하는데 이 때가 일년중 가장 더운 시기이다. 초복은 하지(夏至)후 세 번째 경일(庚日)이고 중복은 네 번째 경일이며 말복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이다. 즉 초복에서 10일 후면 중복이 되고 중복에서 다시 10일 후면 말복이 되는데 이 때의 더위를 삼복 더위라 하여 1년중 더위가 가장 심한 때이다.

복중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계곡이나 산정(山亭)을 찾아 하루를 청유(淸遊)한다.

옛날에는 복중 더위에 대처하기 위해 궁중에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과(氷菓)를 하사 하였고 궁(宮)안에 있는 장빙고에서 얼음을 타가게 하기도 하

였다. 복중에 더위를 이기고 식욕을 돋구기 위해 먹는 시절음식으로 삼계탕과 구탕(보신탕)이 있는데 삼계탕은 약병아리를 잡아 인삼, 대추, 참쌀을 넣고 끈것이고 구탕은 개고기를 끓인 것이다.

「동국세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개를 잡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개장이라 한다.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도 개장국에 고춧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야 시절음식으로 먹는다. 그렇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몸을 보할 수 있다. 또한 사기(史記)에 진덕공(秦德公) 2년에 비로소 삼복(三伏) 제사를 지냈는데 성안 4대문에서 개를 잡아 충재(蟲災)를 막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개 잡는 일이 복날의 옛 행사요 현재의 풍습에도 보신탕은 복날 먹는 가장 좋은 음식이 되고 있다. 또 복날에는 붉은 팔로 죽을 쑤어 먹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복날의 개장은 보신탕음식으로 영양섭취에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붉은 팔죽과 마찬가지로 애초에는 벽사적인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복중에 식욕을 돋구기 위해 밀전병이나 수박을 먹는다. 충청도 지방에서는 복날 새벽에 일찍 우물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이는 복(福)오라는 뜻으로 정월달 첫 용(龍)날에 하는 ‘용알뜨기’와 비슷한 풍습이다.

복날 개장이나 삼계탕은 상류계층에서도 먹었지만 특히 농민들이 많이 먹었으므로 농민들에게는 전승적인 육식일이 되기도 하였다. 복날은 벼가 나이를 먹는다고 한다. 벼는 줄기마다 마디가 셋 있는데 복날마다 하나씩 생기며 이것은 벼의 나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벼는 마리가 셋이 되어야 비로소 이삭이 패게 된다.

밀양 박씨 집안서 '바꾸보살' 모시며 福樂빌어

정성드리러 오가는 길에 남과 맡걸지 않아... 요왕제 앞두고는 자녀 혼넬일도 미뤄

태안문화원 제공

충남 태안군 안면도 앞바다에 위치한 황도는 민속신앙의 보고이다. 풍기풍어제를 위시한 민속신앙이 잘 보존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고장은 여러가지 형태의 가정신앙이 지켜지고 있는데 태안군과 태안문화원, 공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황도의 가정신앙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성주

성주는 집안 대주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서 '대주가 성주이듯이 지주는 주왕이여'라는 말을 한다. 성주는 한 번 받으면 그 성주가 떨어지거나 그 집을 헐어버리기 전에는 다시 받지 않는다. 이외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을 경우와 성주가 떨어진 경우에는 새로 받아 모신다. 남이 살던 집으로 이주한 경우 이전에 모셔진 성주는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성주이므로, 자기 성주를 받아 모셔야 좋다고 여긴다. 떼어냈거나 떨어진 성주는 소각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모셔둔 성주는 그것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곳에 임재해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러한 관념 때문에 다른 일부 지역에서 행하듯이 안택을 할 때마다 다시 모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집의 도배를 새로 할 경우에도 성주를 떼지 않고 그 위에 도배를 하며, 성주가 붙은 부분만큼만 구멍을 뚫어 놓는다. 때문에 깨끗한 도배지 사이로 먼지

가 묻어 검게 된 성주가 붙어있는 경우를 간혹 발견할 수 있다. 지금도 여러집에서 성주를 볼 수 있다.

성주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주는 정월에 안택을 하면서 주로 받는데, 그 달은 개나 돼지를 잡지 않아서 부정하지 않은 시기로 여기므로 다른 달보다 선호했다. 주왕과 당산에 이어 방으로 옮겨온 점쟁이는 방안에 좌정을 하고 먼저 성주를 받아 앉힌다. 미리 대밭에서 베어온 대를 안택하는 집에서 상 위에 세워놓았다가, 점쟁이가 그 대에 종이를 말아 들고 뒤라고 외면서 성주가 앉고 싶어하는 자리를 찾는다. 성주가 앉을 자리가 선택되면 백지에 쌀을 조금 넣고 물을 축여 주물주물 해서 그 자리에 던진다. 일단 '척'하고 달라붙은 성주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때 성주가 잘 붙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다. 성주가 붙지 않으면 그 앞에 성의껏 돈도 놓고 절도 한다. 성주가 붙으면 대주가 절을 하고 만신은 경을 읽는다. 이렇게 성주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반대로 성주를 받지 않으면 웬지 불안했다고 회고한다.

떼어냈거나 떨어진 성주는 소각시키는데, 아무곳에서도 행하지 않고 바다에 소각시킨다. 바다는 앞이 탁 트이고 넓으므로 집안의 액을 물에 떠내려 보낼 수 있어 소각시키기에 좋은 장소로 여겨진다. 적당한 장소가 선정되면 그곳에 나무나 짚을 쌓고 불을 붙인 후에 성주를 올려 놓는다.

주왕(조왕의 다른 명칭)

집안이 잘 되고 무사태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부엌의 부뚜막 솔 뒤에 주왕을 모셨다. 이를 '주왕대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성(性)은 여자라고 여긴다. 예로부터 '주왕의 직성은 여자가 가지고 있고, 남자의 직성은 성주가 갖고 있다'는 말이 있다.

주왕의 신체는 솔 뒤에 선반을 걸고 그 위에 청수한 그릇을 잔대에 받쳐서 올려둔 것이다. 이는 주왕이 부뚜막 위에 앉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 선반을 '주왕'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위하는 집이 많았고, 뱃질하는 가정이나 자손들이 외지에 나가 큰 일을 하는 가정에서는 더욱 극진하게 위했다. 신식으로 집을 개조한 후로는 위하지 않게 되었는데, "신식 부엌에 주왕이 어디 있어, 솔을 걸기를 했나 부뚜막이 있기를 하나"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그러한 상황은 짐작할 수 있다.

주왕을 위한 방식은 집집마다 차이가 난다. 이는 마음 닿는 데로 하는데, 매일 위하기도 하고 초하룻날과 보름날에만 위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네에 부정이 들면 위하지 않는다.

보살할머니

현재 이 마을에서 보살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집은 한 집이다. 이는 현재 오용진씨 가정에서 모시고 있으나, 원래는 밀양 박씨 낙종파의 후손인 한 여자가 시집오면서 모셔온 것이라고 한다. 밀양 박씨 집안의 여자가 혼인을 할 때 자신이 모시던 영신인 '보살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박씨 문중의 처녀가 시집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 밀양 박씨 문중에서 모시는 '바꾸할매'와는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고는 있지만 이전에는 동일한 것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이 영신을 위하는 사람은 오용진씨의 부인으로, 박씨가에서 시집온 분의 맏며느리이다. 시어머니가 모시던 것을 이어받아 모시고 있지만 영신을 위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탓에 몇해전에 한동안 위하지 않았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집 안에 자손들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배사업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죽는 등의 변고가 생겼다. 때문에 빚도 생기고 집안에 갖은 풍파를 겪었었다. 그러던 중 친척중의 한 분이 몸이 아파서 인천에 거주하는 한 만신에게 물어 보았다. 그때 '오씨네에 꼭박할머니가 있으니 잘 모셔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를 전해들은 이씨는 한동안 내버려두어 새까맣게 된 보살할머니의 신체를 새것으로 갈고 위하기 시작했다. 다시 위한 이후로는 자손들도 건강하고 배사업도 잘 되어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한다.

신체는 대나무나 짚으로 짠 '둥구리(동고리의 지역어)'에 여자 한복 한 벌과 쌀 한 되박, 돈 약간을 넣어 둔 것이다. 한복은 흰색으로 하며, 예전에는 명주로 된 것이 들어 있었으나 색이 변하고 지저분해서 나일론 제품으로 갈아 두었다. 현재 보살할머니를 모시는 집은 한 집이 있는데, 건넌방에 봉안해 두었다. 방의 문을 열면 문의 오른쪽 천정아래에 직사각형의 선반을 매고 모셔 놓았다. 선반의 오른쪽 다리 기둥에는 한 타래의 명실이 걸려있다. 모시던 것이 낡고 까맣게 변할 때마다 집안이 좋으라는 의미에서 안택할 때 이를 소각시키고 새것으로 갈아 놓았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모시던 것을 여러 번 갈았으며, 현재 모셔져 있는 것은 1994년에 모신 것이다. 그때 이전에 대나무나 왕골로 짠 둥구리가 너무 낡았기에 대신 분홍 플라스틱 함으로 바꾸었다. 또 명주나 광목으로 된 한복을 합성제품으로 갈았다.

동고리는 지성드릴 때만 열어볼 뿐 평소에는 열어보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함부로 건드리면 탈이 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보살할머니가 있는 방에서 평상시에 기거하지는 않지만 그 방에 있을 때는 발

을 그쪽으로 뺀다거나 머리를 그쪽으로 두고 눕지도 않고 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고 항상 정갈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보살 할머니를 위하는 것은 단독



△ 황도 봉기뽕어제의 뱃기

으로 위하는 것과, 성주와 조상 등과 같이 여러 신령들과 함께 위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독으로는 신곡 났을 때 위하는 것이 가장 크다. 안택이나 설이나 추석 명절에 조상, 성주 등과 함께 위한다. 한편 보통때에는 돈 벌어 왔을때나 시절음식을 한 경우에는 청수를 떠놓고 위한다.

먼저 단독으로 위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곡이 나면 묵은 것은 덜어내고 신곡으로 갈아넣는다. 신곡은 나락이 아닌 도정을 한 흰 쌀을 말한다. 이때 동고리 안의 옷이 더러워졌으면 꺼내어 태우고 새것을 넣어둔다. 제물이 모두 마련되면 그 집의 부녀자는 보살할머니 신체 밑에 백지를 깔고 상을 놓고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차린다. 햅쌀로 지은 밥 세 그릇, 청수 한 그릇, 무나물 한 그릇, 찢조기(본인이 놓고 싶은 수만큼 조기를 찢다)를 올린다. 그 앞에 아주머니가 서서 큰 절을 두 번 반 올리고, '올 해 운수 좀 좋게 해주시고, 집안이 편안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원한다. 이렇게 위한 밥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식구들끼리만 나누어 먹는다. 덜어낸 쌀로는 맵거나 짜지 않은 반찬에 곁들여서 먹는데, 반찬은 간장과 김 등이 주로 오르며 지저분하게 먹지 않아야 한다. 또 한 톨의 밥알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만약 쌀을 덜어낼 때 쌀에 바구미가 생겼거나 하면 좋지 않은 것으로, 그 해가 안 좋게 넘어갔다고 여긴다. 그런 후에 식구들이 햅쌀로 밥을 지어 먹는

다. 밥은 햅쌀을 백지를 깔고 열기미로 쳐서 티를 없앤 후 짓는데, 이렇게 가려낸 쌀은 한 톨도 버리지 않아야 하므로 소중하게 다룬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새로운 음식을 했을 때도 돈이나 음식을 청수와 함께 상에 받쳐 보살할머니 앞에 먼저 갖다 놓고 재배드린다. 특히 바다에 나가 뱃일로 돈을 벌면 돈보따리와 함께 청수를 떠들러 먼저 성주를 위하고 나서, 다음으로 보살할머니를 위한다. 이 때 청수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위했던 물이라 좋다고 여겨 식구들이 마신다.

정월과 팔월 명절에는 조상, 성주와 함께 위한다. 시절음식으로 마련되는 이날의 상은 조상과 성주, 보살할머니께 똑같이 차려서 올린다. 이때는 조상을 가장 먼저 위하고 성주, 보살할머니 순으로 위하는데, 기제사 지내듯이 지낸다.

정월에 안택할 때는 마당을 깨끗이 쓸고 마음을 정갈하게 갖는 등의 신경을 쓴다. 부엌의 주왕긋을 한 뒤에 방안에 상을 차리는데, 이때 여느 안택에서는 성주상과 조상상만을 차리지만 보살할머니를 위해야 하므로 따로 상을 마련해 놓는다. 이때 각 상에 올리는 제물은 다음과 같다. 성주상에는 청수 한 그릇, 쌀 한 바가지, 불밥이쌀, '삼사실과'(삼색실과의 지역어), 탕, 나물, 떡시루, 쇠고기 산적, 찢조기를 놓는다. 불밥이쌀은 대주사발에 쌀을 퍼 담고 초를 꽂아 실을 걸고 돈을 올려놓은 것이다. 과일은 위아래만 깎아놓고, 밥은 까지 않은 통밥을 쓴다. 바지락탕이나 낙지탕, 동태탕 중 한 가지만 탕을 해서 올린다. 나물은 세가지(고사리, '무수'(무의 지역어), 녹두나물)를 올린다. 떡은 세 되에서 닷 되

분량의 백무리를 썰 올린다. 조상상은 제사상 차림으로 차린다. 밥 한 그릇, 찢 조기, 삼색실과, 탕, 나무, 우렁포나 민어포, 약간 떼어놓은 백무리를 올린다. 보살할머니상 위에는 떡(한 되 세 홉 분량의 백무리), 양재기에 담은 한 바가지 분량의 쌀(쌀 위에 돈을 얹어 놓는다), 청수 한 그릇, 찢 조기, 쇠고기 산적을 올린다. 이렇게 차리고 나서 성주를 가장 먼저 위한다. 대주가 절을 하면 만신이 경을 읽는다. 이어 성주 앞에서 대들보 소지를 한 장 올리고, 배 소지를 올리고 나서 동사(同事)들까지 모두 소지를 올려준다. 집안 식구들 소지도 다 올려주는데, 객지에 나간 자손들까지 모두 한 장씩 올려준다. 다음으로 보살할머니를 위하고나서 조상을 위한다. 이 때는 그 앞에서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이 밖에도 칠월 칠석에는 먼저 '칠성당' (절이나 보살을 찾아간다는 표현임)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 그 때 정성들인 쌀을 보살할머니 앞에 갖다 놓는다. 칠성은 집안의 여러 액운을 없애달라는 의미에서 모신다. 주로 아이의 수양엄마를 삼았거나 아이의 이름을 팔았을 때 또는 개인의 지성을 들일 때마다 칠성당을 찾아가 정성을 드린다.

바꾸보살(천황보살)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밀양박씨네는 지금도 방안에 '바꾸보살(천황보살)'을 조상으로 여겨 모신다. 언제부터 바꾸보살을 모셔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시할아버지도 알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수백년이 되었다고 짐작할 뿐이다. 바꾸보살은 밀양박씨네의 조상으로, 시집을 가려하다가 가지 못하고 홍성군 광천면 천광사에서 중노릇을 하다가 돌아갔다고 전한다. 이것은 밀양 박씨 후손 중 아들들은 누구나가 모셔야 하는 것으로 황도 이외의 안면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모두 모시고 있다. 분가할 때 천광할매를 새로 모신다. 그러나 딸들은 시집갈 때 모시고 가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그냥 간다.

현재 박장환씨와 박성환씨 집에서 바꾸보살을 위하고 있으며, 박후배씨와 박기환씨, 강대형씨의 안부인(故 최순분) 등 세 집에서 몇 년전까지 위하였다. 강대형씨는 부인인 최순분씨가 작고하자, 부인이 모셔왔던 바꾸보살을 문 앞에 갖다놓고 송장이 나갈 때 몽둥이로 켜으나, 깨지지않자 그냥 집어내 버렸고 그 뒤로 위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은 박장환씨 집에서 바꾸보살을 위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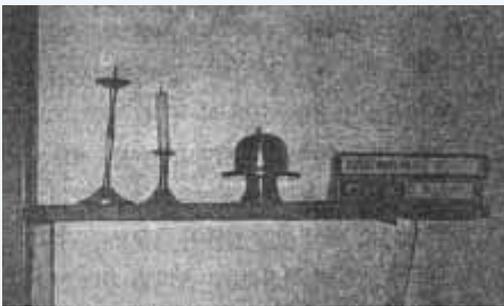
신체(神體)는 안방 한 쪽 벽 위에 나무선반을 드리우고, 그 위에 잔대 한 개, 촛대 한 개, 촛각을 올린 것이다. 예전에는 동고리를 곁에 함께 모셨는데, 그 안에는 흰 백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으므로 동고리를 불사르고 청수 그릇과 촛대만 남겨두었다. 때문에 현재 천광할매를 모시고 있는 다른 집은 박장환씨의 후손이다. 가장 웃어른인 박장환씨가 동고리를 불사르는 것을 보고 다른 집은 처음부터 청수와 촛불만을 밝혔다고 한다. 이를 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달 초하룻날마다 안부인이 일찍 일어나서 머리 목욕을 감고, 새벽에 집샘에서 새로 뜬 물을 잔대에 새로 갈아올리고 촛불을 켜 놓는다. 한달 전에 떠 올렸던 묵은 물은 장광에 버린다. 그 앞에 서서 대주와 아이들이 편안하게 소원성취하게 해 달라고 비슨한다. 이어 큰 절을 일곱번 한다. 촛불은 조금 있다가 바로 끄고 물은 한 달동안 그대로 둔다. 만일 초승경에 마을에 초상이 나면 부정하다고 여겨 물을 떠 놓지 않았다가, 보름 경이 되어서야 물을 떠 올린다.

이 밖에도 정월 초하루와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에 극진히 모신다. 아침에 청수를 떠 올리고 밥과 미역국(간장만 넣어 간을 맞춤)을 한 그릇씩 선반 위에 함께 올린다. 그 앞에서 큰 절을 일곱번 올리고나서, 아침식사 때 내려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먹는다. 집 안에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가장 먼저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가 사용한다. 이것은 바꾸보살님이 집안을 다 돌보아줘서 돈이 들어왔다고 여



△마루의 벽에 흰 종이를 예쁘게 접어 붙여 놓은 성주



△한 맺혀 죽은 바구보살을 모셔야 집안이 편안하다고 하여
압방의 아랫목에 모셔둔 신체

기는 믿음에서 행한다.

요왕제

지금도 가장 빈번하게 치러지는 것이 바로 요왕 위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다와 가까이 살고, 어른들이 바닷길 할 때 아무 사고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한다.

음력 정월에 좋은 날을 가려서 요왕제(혹은 '유황제'라고도 표현함)를 지낸다. 날은 용(龍)날을 선호했으며, 몸이 부정하거나 동네에 산 부정이나 죽은 부정이 생기면 위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동네가 깨끗한 달로 미룬다. 산 부정은 대개 7일을 가리고, 죽은 부정이 들면 3일을 가린다. 예로부터 산 부정을 더 어렵다고 여긴다.

제를 지내려면 아침에 집과 대문 앞의 청소를 하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대문 앞 양쪽에 황토를 각기 한 무더기씩 놓아둔다. 이때 금줄은 띄우지 않는다. 집집이 모두 요왕을 위하므로 그 날은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큰소

리도 내지 않으려고 애쓴다. 특히 아이들을 혼낼 일이 있어도 혼을 내지 않고 미루어 두었다가 이튿날 이야기를 한다. 제를 앞두고 제를 주관할 주부는 목욕재계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기도하고 있다. 제를 지내러 간다.

제는 대개 물때를 보아서 물이 들어오는 때에 맞추어서 지낸다. 따라서 아침에 물이 들어오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에 나가므로 정해진 시간대가 없다.

장소는 가정주부의 마음 닿는 곳이 되는데, 선창 끝 갯변(갯물)에서 가장 많이 위한다. 제를 지내러 갈 때는 제물로 밥(‘유황밥’이라 명명) 세 보삭지, 잔대에 받친 청수 한 그릇, 두부탕, 무탕, 조개탕 각각 한 그릇, 찢 조기 세마리를 가져가며, 짬을 깔고 위에 상을 놓고 제물을 진설한다.

이때 대개의 경우 주부 혼자 가는데, 상 앞에 서서 동남서북을 돌아가면서 재배를 한다. 특히 아이를 무사하게 달라는 마음을 담아 비손을 걸드린다. 그런 후에 짐을 던진다. 짐은 제물로 올렸던 밥을 각기 백지에 싼 것으로, 세 개를 만든다. 그것을 물에 던지면서 “고맙게 받으시다”라고 외치며 멀리 확하고 내 던진다. 짐은 폭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둥둥 떠오르기도 한다. 이때 짐이 폭하고 가라앉아야 좋은 것이다. 만약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떠오르면 부정해서 안 받는다고 하여 다시 날을 받아 정성을 드려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 그만 두기도 한다. 짐을 잘 받을 때는 돌멩이를 던진 듯이 폭폭 들어간다.

조기나 탕 등의 다른 제물도 던지며, 빈 그릇은 엮어 가지고 온다.

정성을 드리러 오가는 길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특히 정성을 드리러 가는 길에 정성을 드리러 오는 사람을 만나면 그 길을 건너지 않고 기다려준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싸움이 나므로 조심한다.☞

전국문화원연합회

211개 지방문화원장 일동 '문화원 국고지원 중단 강력반대' 건의문 전달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전국 211개 문화원장의 뜻을 모아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종전대로 중앙정부 지원을 존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6월 21일 전국시도지회장과 이사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통해 '지방문화원 국고지원 중단은 민족문화를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세계화 시대의 민족문화 정립과 지역문화의 증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 내용을 기획예산처 장·차관과 예산실장 등 관계자와 국회 예결위 및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전달했다. 전국 문화원장 일동 명의로 된 이 건의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비문화적 간섭으로 지방문화가 시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연한 의지로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건의드리오니 지방문화원 사업의 국고지원 중단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고 있다. 한편 일부 지방신문에서는 지방문화원 국고보조 중단은 결국 사업을 축소시켜 문화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문화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돼 정부의 떠넘기식 방안이 아니냐는 불만이 일고 있다'며 '지원중단안이 국회에서 심의 통과될 경우 그동안의 국고지원분 50%까지 지자체가 떠안아야하며 지자체에서도 지원되지 않을 경우 문화원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문화발전의 퇴보가 예상된다'고 대서특필 했다.



2001년 제1차 향토문화연구자 초청연찬

전국문화원연합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경기지역 문화원 임직원 및 회원·향토사가·향토사단체회원·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1년 제1차 향토문화연구자 초청연찬을 가졌다. 제2차 연찬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서울·강원·제주)이며 9월에 3차례, 10월에 1차례 더 열린다.

서울특별시

도봉문화원

제4회 도봉한마음 가족가요제

도봉문화원은 7월 7일 오후 4시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4회 도봉한마음 가족가요제를 개최한다.

도봉문화원 여름 문화학교 참가자 모집

도봉문화원은 7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름 문화학교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도봉구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 문화학교는 '제3기 우리문화체험교실' (1차 7월 24~25일, 2차 7월 26~27일)과 문화유적지답사(1차 8월 7일, 2차 8월 9일)로 각각 도봉구민회관·교육박물관과 강화도유적지 도자기예술관에서 실시된다. 또 '엄마와 함께하는 현장학습'은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교육박물관에서 이뤄진다. 참가비는 '제3기 우리문화체험교실'이 1만2천원, 문화유적지답사가 1만원, 엄마와 함께하는 현장학습이 1만5천원이다. 문의 : 도봉문화원 (02-905-4026)

도봉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

도봉문화원은 도봉소년소녀합창단에서 활동할 단원을 모집한

다. 접수는 7월 6일까지이고 10일 오후 4시에 공개오디션을 거쳐 선발한다. 초등학교 3학년 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 : 도봉문화원 (02-905-4026)

강남문화원

제3회 강남미술대전 시상식

▷일시 : 6월 12일
▷장소 : 강남구민회관(1층) 홍보전시실

영등포문화원

제2회 단오한마당 축제

▷일시 : 6월 16일
▷장소 : 영등포공원

부산광역시

금정문화원

제1회 전국 금정 무용경연대회 개최

금정문화원은 지난 6월 16일 제1회 전국금정무용경연대회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금정문화원 부설 문화예술연구소 무용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부산시, 금정구, 전국문화원연합회, 동래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무용인구의 저변확대와 무용예술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문화원 단위로는 처음으로 마련됐다. 한국무용(전통·창작)·현대무용·발레분야로 나뉘진

행된 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일반부 현대무용 부문에 출전한 김현정씨(작품명:기억의 집으로)에게 돌아갔다.

대구광역시

달서구문화원

『제2회 달서 전국사진공모전』수상작 전시회

▷일시 : 6월 12~18일
▷장소 : 푸른방송 갤러리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원

제2회 서석문화축제

▷일시 : 5월 1~6일
▷장소 : 광주 동구청 앞마당 일원

제4회 2001 무등산 철쭉꽃 큰잔치

▷일시 : 5월 13일
▷장소 : 무등산 장골재공원 일원

광주서구문화원

광주·전남지역 도예가 초대 도자기전

광주서구문화원은 지난 6월 13~24일 서구문화센터 갤러리에서 광주·전남지역 도예가 초대 도자기전을 개최했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광주북구문화원

제5회 무드리 국악경연대회

▷일시 : 6월 2일

▷장소 : 광주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경기도

과천문화원

문화박물관교실 현지견학



과천문화원은 2001년도 지역문화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박물관 교실 수강생(53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의 고궁인 창덕궁과 후원인 비원을 견학했다. 특이할만한 것은 옛궁성의 건물배치 및 자연적인 정원의 조경으로, 실생활을 위주로 한 옛 선현들의 슬기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였다. 한국 전통 문화학교 정재훈교수의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또한 고궁의 향기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화성문화원

화성문화원 이전개관

1964년 창립한 이래 향토문화 지킴이로 활동해 온 화성문화원이 지난 6월 1일 38년 동안의 숙원을 푸는 개관식을 가졌다. 지난 96년 문화원사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99년 9월 시공해 18개월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이날 개관한 문화원사는 연면적 310평의 지상 2층 다가능 건물로 공사비 12억 3천만원이 소요됐다. 1층에는 자료실, 문예창작실, 정보자료실, 전자도서관, 세미나실, 문화사랑방, 개인연습실 등 문화의 집 시설이, 2층에는 '화성문화원', '향토사료실'이 들어섰다. 이날 성대히 치러진 개관식에는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과 우호태 화성시장 등 많은 문화인사와 주민·사회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문화 유공자 표창, 합창단 축하 공연, 향토농악놀이, 장승·숫대 및 맷돌 탐 조성에 따른 고유제, 문화상징 조형물의 제막식, 가훈 써주기과 즉석 서예 행위예술 시범, 미술 전시회가 열렸으며 사진전시회, 서예전시회 등이 계속 전시될 예정이다. 화성문화원은 본격적인 화성의 문화를 꽃피우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화성문화원 및 향남 문화의 집 개관식 기념 커팅 모습 ▷



△화성문화원 전경

문화원소식

강원도

강원지회

제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강원도지회는 지난 6월 8일 횡성군 종합운동장 옆 특설무대에서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이대근 강원도지회장 심진황 횡성문화원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와 함께 2001년 지역문화의해 기념 지방 무형문화재 공연을 가졌다.

삼척문화원

제3회 '어머님께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 시상식

▷일시 : 6월 9일
▷장소 : 문화사랑방
▷응모수 : 관내 초·중·고등학교 764통

군장병 역사 및 인성교육

▷일시 : 6월 7일
▷장소 : 문화사랑방
▷대상 : 제23사단 통신대대 장병 150명

제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참가

▷일시 : 6월 8일
▷장소 : 횡성종합운동장
▷내용 : 본원 부설 '너른 마당' 풍물패 및 응원단 42명이 참석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충청북도

충주문화원

제27회 탄금대기 차지 총력안보 웅변대회

▷일시 : 6월 23일
▷장소 : 충주문화원 대회의실

경로효친 모범학생 시상

▷일시 : 5월 26일
▷장소 : 충주문화원 회의실

보은문화원

두드락 초청공연

▷일시 : 6월 8일
▷장소 : 보은문화예술회관

문화답사(정읍동학유적지)

▷일시 : 6월 10일
▷장소 : 정읍 동학기념관 및 전적지
▷답사코스 : 문화원출발-백양사-중식-황토현전적지(기념관, 기념탑)-전봉준선생 고택-말목장터-만석보-백산-보은도착

충청남도

충남지회

충남지회 월례회의 개최

충남지회는 지난 5월 18일 당진문화원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문화원 광역자치단체 이양과 관련 및 해외문화교류 등 사업전반이 논의됐다.

서산문화원

서산시 청소년 영상 문화제



▷일시 : 6월 1~3일
▷대상 : 청소년
▷장소 : 서산시 문화회관 (소강당)

▷내용 : 청소년들에게 '영상'과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그들에게 생각하고 꿈꾸는 세상을 표현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서산 청소년 영상문화제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 15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

▷일시 : 6월 8~10일
▷장소 : 해미읍성

▷내용 : 서산문화제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전야제에 이어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개최했다. 전국각지에서 18만여명의 많은 관람객이 찾았으며, 작년의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해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다.

금산문화원

금강풍류전 2001

▷일시 : 5월 26일

▷장소 :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용강서원

온양문화원

제44차 문화현장 탐방

온양문화원은 지난 5월 27일 KBS 견학홀 및 의왕월암 철도박물관에서 제44차 문화현장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임실문화원

최종인 신임 원장

임실문화원은 5월 4일 박래봉 원장 후임에 최종인씨를 신임원장에 선임했다.

부안문화원

주소이전

주소 : (579-806)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567
전화번호 : 063-583-2101

전라남도

함평문화원

충효열 심기 순회 강연회 개최

함평문화원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관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충효열심기 순회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고교를 순회하면서 개최

된 충효열심기 순회강연회는 함평문화원이 지난 88년부터 실시해온 연례 행사로 올해는 이현석 동신대 강사와 김광수 성균관 위촉 충효강사가 강연했다.

경상북도

경북지회

2001 임시총회

경북지회는 6월 11일 임시총회를 통해 이창교 문경문화원장을 경북지회장으로 선출했다. 다음은 임원진명단.

▷부지회장=이길생(포항문화원장) · 정지옥(영주문화원장) ▷운영위원=김길수(김천문화원장) · 김홍균(구미문화원장) · 이만희(상주문화원장) · 김종우(의성문화원장) · 제수천(성주문화원장) · 장학중(울진문화원장) ▷감사=백병구(예천문화원장) · 유병규(고령문화원장)

포항문화원

영일만 서예대전 공모요강

포항문화원은 포항서예인협회와 영일만 서예대전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영일만 서예대전 작품공모'를 개최했다. 작품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시한다.

영주문화원

제5회 소백사랑 · 철쭉사랑 축제

▷일시 : 6월 2~3일

▷장소 : 희방사 주차장, 죽령, 연화봉

문경문화원

경상감영 400년

▷주최 : 대구광역시

▷일시 : 5월 25일

▷장소 : 경상감영공원 등 시내 일원

주부예절교실개강

▷일시 : 5월 17일

▷장소 : 문경문화원 다목적실

충효예절교실(1기)

▷일시 : 7월 23~27일

▷장소 : 문경문화원 회의실

▷대상 : 관내 중학생

▷내용 : 청소년들에게 윤리 도덕을 숭상하는 충효예절교육으로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 정립과 애국, 애향심 그리고 경료효친사상을 고취함

한문서예교실

▷일시 : 7월 23~8월 17일

▷장소 : 문경문화원 부설 한문서예교실

▷대상 : 관내 초등학생

경산문화원

제17회 청소년 예술제

▷일시 : 5월 9일

▷장소 : 문화원 강당, 성암산 충혼탑

▷내용 :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연중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예술제로 올해에도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4,700여명이 참가해 미술, 백일장, 서예 부문에서 솜씨를 겨뤘다.

제23회 청소년 웅변대회

▷일시 : 5월 10일

▷장소 : 문화원 강당

노인복지대학 선진지 견학

▷일시 : 5월 17일

▷장소 : 문경새재

문화가족 문화유적지 순례

▷일시 : 5월 22일

▷장소 : 전남 여수 항일암

▷내용 : 문화가족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유적지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준비된 행사로 올해는 문화원의 이사, 운영위원, 일반회원, 문화학교 회원 등 약 90명이 참가한다.

울릉문화원

제4회 단오절 민속그네뛰기대회

▷일시 : 6월 26일

▷장소 : 체육공원 그네장

경상남도

마산문화원

자매결연 12주년 맞아 日후쿠야마 미노미 공민관 방문



허종성 마산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회원 10명은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 후쿠야마 미노미 공민관을 방문했다. 자매결연 12주년에 즈음해 양국문화의 교류사업으로 열린 이번 방문은 지역주민과 어린이·학생들간 교류의 장인 '국제이해교실'을 개설해 상호간의 문화를 배우고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에서 후쿠야마 미노미 지역 노인구락부 회원과 미노미 소학생 등 2백여명의 환영을 받은 허원장은 '지역문화의 해를 맞는 우리 문화원의 역할'에 관해 강연했고 안정자 부원장은 한국불교문화의 전통민속인 '불모산 영산재' 비디오 상영후 그 유래에 대해 이해를 돕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일본측은 일본의 전통춤과 함께 미노미 소학

교 학생 24명이 한국민요 '아리랑'과 '무궁화' 등 3곡을 불러 갈채를 받았다.



진해문화원

상반기 시민 향토사적지 답사

▷일시 : 5월 15~6월 23일

▷장소 : 관내 향토사적지(우체국 → 고이승만대통령별장 → 충무공 동상 →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및 거북선 → 주자영당 → 웅천현읍성 → 남산왜성 → 굴강·안골왜성 → 용원유주각)

▷내용 : 진해문화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10회에 걸쳐 상반기 시민 향토사적지 답사를 실시해 각계 각층의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우리고장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직접 답사케 함으로써 조상의 일을 되새기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다짐케 했다.

2001년 경로호친 모범학생 표창 시상식

▷일시 : 5월 19일

▷장소 : 진해문화원 2층 회의실



사천문화원

춘계문화유적지 탐방

▷일시 : 5월 18일

▷탐방장소 : 경주시(감은사지-이건대-분황사-황룡사지-경주박물관)

김해문화원

한가야청소년예술단 정기공연

▷일시 : 6월 16일

▷장소 : 임호야외공연장
▷내용 : 김해문화원 문화학교 고전무용반 학생들로 구성된 한

가야 청소년예술단이 제5회 정기 공연을 가진다. 한가야 청소년예술단은 김정숙선생의 지도로 매월 양로원, 고아원, 경로당, 정신병원 등 불우시설을 찾아다니며 봉사공연을 해오고 있는 무용단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가해 공연 및 봉사활동을 했으며 김해시 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공연에는 화관무, 꼭두각시, 장구춤, 길쌈놀이, 살풀이, 봄타령, 부채춤, 즉흥무, 승무, 소고춤으로 구성된 임호야외공연장에서 우리의 춤으로 시민들에게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할 것이다.

밀양문화원

독립투사 김학철선생 초청강연회

밀양문화원은 6월 4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마지막 조선의용대원인 독립투사 김학철 선생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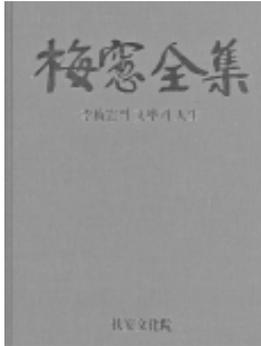
사천문화원▽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梅窓金集

‘이매창의 문학과 인생’



부안문화원이 그동안 4권까지 출간한 ‘梅窓全集’을 한권으로 통합해 발간한 것이다. 부안출신 기생으로 문장실력이 뛰어났던 이매창의 유고를 수집해 번역하고 그의 생애와 문학을 재조명한 ‘이매창’ 연구서적이라 할 수 있다. 부안문화원 김민성원장이 공들여 만든 귀중한 자료이다. 신국판 양장본 852면. (부안문화원)

국역 조선환여승람 제천

조선환여승람의 저자 이병연은 1910년 부터 1937년까지 전국 241군 중 129개군의 인문지리 현황을 직접 조사 편찬하였다. 1933년부터 1935년까지 3년동안 26개군에 관한 것이 책으로 간행되지 못한 상태로 보관되어 오던 중 1990년 그 후손이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 각문화원에서 원문을 번역해 출간하게 되었다. (제천문화원)



물에 잠긴 내 고향

충주댐 수몰, 제천사람들



충주댐 건설로 수몰된 함암뱃터와 황석나루, 북진과 강변에 자리잡았던 청풍, 정겹던 초가집과 학교운동장을 떠올린 해맑은 웃음소리를 사진으로 모아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20여권의 귀중한 사진사료는 충청일보가 제공했다. 흑백사진 화보지만 귀중한 자료다. (제천문화원·충청일보사)

조선시대 史料를 통해본 橫城



조선왕조실록·조선시대 비변사등록·조선시대 사마방목 등 3개 사료에 기록돼 있는 횡성관련 내용을 추려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냈다. 여러대학에서 한국사에 대한 강의를 한바 있는 강대덕씨가 편저하고 횡성문화원이 간행했다. 지역민에게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집이다. 국배판양장본 (횡성문화원)

機張의 歷史와 文化

「기장의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대동지지,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기장읍지 등에 수록된 기장의 역사를 바로 인식함으로써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알리는데 일조가 되고자 발간했다」 (기장문화원)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군의 9개 읍·면별로 마을의 지명유래를 조사해 한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편저자는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위원 이영식 “고운 이름, 뜻깊은 이름인 횡성의 땅 이름을 후손들에게 정신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심진황 문화원장은 말하고 있다. (횡성문화원)



조선후기 기장현의各司謄錄抄

‘각사등록’은 조선왕조의 중앙과 지방의 모든 공적 기관의 공문기록을 총망라한 것이다. 이 책은各司의 謄錄중에서 기장과 관련이 되는 기록을 모아서 번역한 것으로 저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간행한 ‘각사등록’ 제7책(경상도편 1)부터 제17책(경상도편 7)까지 이다. 4×6배판 양장본 684면. (기장문화원)

월간 ‘우리문화’

구독·광고문의 T.(02)704-2311

朝鮮中期以後

기장현관계 文獻集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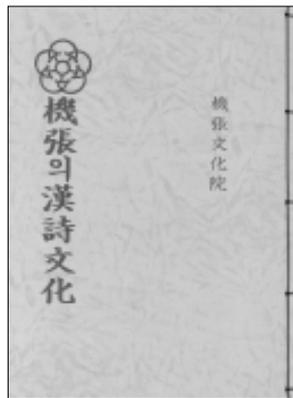
‘기장의 역사와 문화’ ‘조선후기 각사등록초’에 이어 세번째 자료집으로 간행된 책이다. 이 자료집에는 기장의 역사와 문화를 밝혀줄 ‘비변사등록’·‘표인영내등록’ 등 여러 문헌을 종합하여 각

편으로 나누어 번역해 수록했다. 향토문화연구의 좋은 자료다. (기장문화원)

조선왕조실록의 寧越史料(下)

조선왕조실록에서 영월과 관련된 내용을 추려 만든 책인데 하

기장의 漢詩文化



기장문화원은 지난 98년 제4회 차성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전국한시백일장을 개최했는데 경향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참가하고 한시를 보내주었다. 기장문화원은 지상한시백일장과 즉일한시백일장으로 구분해 입상작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기장의 한시문화’란 제목으로 묶어 발간했다. (기장문화원)

전국문화원 사업총람



전국문화원연합회가 발간한 2001년도 판이다. 전국 기초단체마다 설립돼 있는 211개 지방문화원의 2000년도 사업실적과 2001년도 사업계획을 신고 있다. 또 연합회 연혁과년도별 지방문화원 설립추이,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원태수석연구원의 ‘2000년도 전국문화원사업 평가’에 대한 글을 신고 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신간안내

권에는 광해조에서 순종까지의 영월사를 싣고 있다. 조선시대 영월관련 사료정리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옛 사건과 인물의 행적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문화의 시대를 사는 영월인들에게 생활지표를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월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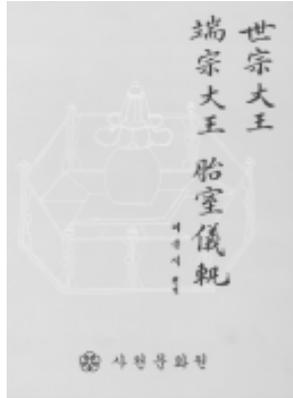


泗川地名誌



사천시 6개동과 8개 읍·면별로 지명과 문화유산을 조사해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땅이름은 그곳에 사람들의 생활·문화·역사의 소산이며 땅의 형태, 옛날의

세종·단종대왕 태실의궤



사천에서 4백년동안 보관해온 '세종대왕 태실석난간修改의궤'와 3백년 동안 보관해 온 '세종대왕·단종대왕 태실修改의궤' 및 '세종대왕·단종대왕 태실 표석堅立時의궤'를 번역해 한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뒷면에는 원본을 영인해 실었는데 인쇄상태가 좋지않아 아쉽다. 이은식편역(사천문화원)

창밖의 세상



영천문화원 김태원 원장의 산문집으로 북랜드에서 펴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출판매체에 발표한 칼럼과 행사시의 기념사와 축사 등이 실려있다. 병원장으로 환자들과 씨름하며 문득문득 건너다 본 창밖의 세상을 나름대로 관조한 내용이 감명깊게 다가온다. (북랜드)

변천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고 오필근 사천문화원장은 말하고 있다. 사천의 옛지도와 행정구역도, 문화유적지도도 함께 싣고 있다. (사천문화원)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석정 윤세주 열사의 생애와 독립정신

밀양문화원에서 순국선열 석정 윤세주 열사 탄신 10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으로 출간한 것이다. 앞면에 11쪽의 사진사료와 주제발표논문이 게재되고 부록으로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의

격문, 의열단군자금요청서 등 관련문서와 밀양의 독립운동가도 실려있다. (밀양문화원)

사보편집실에서 저명인사들에게 청탁했던 '담배이야기'를 한데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으로 시·동시·청소년시와 동화·평론·수필이 실려있고 등단회원 작품조명을 특집으로 취급했다. 또 천안문화원 이정우 사무국장의 권두언 '시대와 문학인의 위상', 천안시 이근영 시장의 칼럼 '균형감을 갖춘 문인들을 기대하며'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한국문인협회천안지부)

생활속의 오랜 벗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펴낸 담배에 관한 글 모음집이다. 87년 사보를 창간한 이후 15년동안

天安文學 (2001년 여름호)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에서 발간한 '2001 여름호'이다. 회화작품

이달의 **책**

'지역문화' 현황과 비전 한권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이해준 지음. 문화닷컴.12,000원

'2001, 지역문화의 해'에 맞춰 출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때에 전문연구자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관련 공무원·정책입안자·일반인들이 한번쯤 일독해 보면 좋을 만한 책이다. 중앙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지역사, 그리고 오랜 시간속에 주민의 삶속에 녹아 들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지역문화. '현장연구자'로 평이 난 이해준 공주대 교수가 '어떻게 지역사와 지역문화 연구를 할 것인가'에 관해 나침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역문화연구가 현실적 학문으로 존립기반과 가치를 지니려면 현대사회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몸짓이 필요하다. 다만 그 범위가 지역이고 문화라는 점만이 독특할 따름이다"고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지역문화란 자원을 상품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성과 위험성이라는 두 축을 오가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다. 누구 못지않게 문화상품화를 강력히 제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논

의가 전제돼야한다는 것. 총 2부로 된 이 책은 제1부에서 지역사·지역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과제를 비롯 지역문화를 살리는 문화정책, 지역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지역단위 박물관, 향토지편찬방향, 지방기록자료의 관리, 지역축제의 문화관광자원화 등에 대해, 제2부에서는 금산·진도·서산·강진등의 문화역사와 함께 '성터유적과 지역사 연구'·'역사따라 변했던 지리산신과 민중의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내 유일의 지역문화 전문출판사로 알려진 큰 기획이 최근 별도 범인으로 신설한 문화닷컴이 사명감을 갖고 내놓은 학술총서 제1집이다.

지난 6월,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미술인들이 모인다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아주 특별한 미술 전시회가 있었다.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이 전시회는 어느 유명한 중견 작가의 전시회가 아니라, 아마추어로 구성된 과천문화원(원장 박영재) 문화학교 동아리인 '선백회' 회원 18명의 작품전이다. 이 전시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방문화원으로서의 처음으로 미술의 본고장에서 갖는 전시회이기 때문이다.

선백회를 수년째 지도하고 있는 김광현 강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는 "인사동이라는 미술전문 동네에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들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각자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창립한 선백회는 최소한 2년 이상 수목화교실을 수강한 회원으로 주부가 대부분이다. 소재나 표현의 진부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림,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고자 애쓰는 아마추어 작가들이다. 그동안 과천시에서 매년 전시회를 가져왔었다. 선백회는 앞으로 2년마다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미술공모전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백회 회원들은 아마추어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자신의 표현양식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홍정임 선백회 회장은 "한없이 마음이 설레이지만,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줄까 조마조마하다"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본격적으로 중앙무대에서 뛰어보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는 박영재 과천문화원장, 과천시청 문화예술과장, 선백회 회원과 그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회원들의 그림을 감상했다. 전시회는 닷새간의 인사동 전시 이후 과천시민회관에서 닷새동안 열렸다.

한편 과천문화원의 문화학교는 수목화교실 등 13개 강좌를 연중 개강하고 있으며, 대학교 교양강좌 수준의 과천문화박물관 교실에 2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동에서 평가받고 싶었다”

전 명 찬 |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정보과장



△홍정임 선백회 회장



일본의 후쇼사가 출간한 중학교용 역사·공민교과서는 일제의 침략 역사를 미화한 곳이 많아 한국과 중국 정부가 재수정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일본내에서도 양심적인 학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만든 일본의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는 왜곡 교과서의 대량 보급전략의 하나로 그들의 논리를 담은 책을 만들어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시판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우익세력의 전략이 상당히 치밀하고도 과감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일본인의 보수 우익세력의 여론을 모아 한국과 중국 등의 시정요구에 맞서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 또한 미온적이다. 우리로서는 또 한방 뒤통수를 맞을 우려가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학자들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한 양심의 소리를 정리해 봤다.(柳)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보는가? 언제부턴가 인간이 신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며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 오고 있다. 수만리 길을 가지 않아도 그 쪽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듣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산봉우리 이상의 건물을 올리는 것은 이제 인간의 가장 낮은 능력에 속할 정도다. 성전환도 자유롭고 '복제양'도 쉽다. 신비롭게만 여겼던 달에도 착륙해 토끼와 절구공의 신화를 와자작 깨버렸다. 그렇지만 인간은 아직도 위대하지 못하다. 어쩌면 인간만큼 왜소함을 가장 잘 의식하는 존재도 없을 듯 싶다. 못하는 것이 없는 듯 보이는 인간이 하늘의 '물벼락' '불벼락'에는 꿈쩍 못한다. 기쁨으로 온 국토가 거북이 등 처럼 갈라지자 사람들이 하늘 보는 횃수가 늘어났다. 하늘도 화가 날만하다. 이기주의적인 사고로 더욱 황폐해진 사회를 향해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를 말하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인간은 무한한 힘을 발휘하지만 그것 역시 하늘아래서 가능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성경에도 하늘을 무시하고 인간만을 과신 하는 곳에는 벌을 내렸다. 어느 작가가 인터넷을 끊고 책으로 돌아온 것 처럼 인간이 자신에 대한 자만을 끊고 하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으면 한다. 난 인간에 의해 정복된 벌거벗은 달보다 희뿌연 구름에 가려 긴가민가한 토끼의 절구질이 더스럽다.(敝)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거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를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꾸꾸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전국 문화원 현황

우리문화원은 전국에 2백11개 있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 · 종로문화원 · 중구문화원 · 용산문화원 · 성동문화원 · 광진문화원 · 동대문문화원 · 중랑문화원 · 성북문화원 · 강북문화원 · 도봉문화원 · 노원문화원 · 은평문화원 · 마포문화원 · 양천문화원 · 강서문화원 · 동작문화원 · 관악문화원 · 강남문화원 · 송파문화원 · 강동문화원 · 금천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부산광역시 · 동래문화원 · 북구낙동문화원 · 부산강서문화원 · 연제문화원 · 기장문화원 · 사상문화원 · 금정문화원 · 대구광역시 · 중구문화원 · 달성문화원 · 남구대덕문화원 · 대구북구문화원 · 대구서구문화원 · 달서구문화원 · 대구동구팔공문화원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 · 부평문화원 · 강화문화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광주서구문화원 · 광주남구문화원 · 광주북구문화원 · 광산문화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중구문화원 · 서구문화원 · 유성문화원 · 대덕문화원 · 울산광역시 · 울산문화원 · 울주문화원 · 울산중구문화원 · 경기도 · 경기도지회 · 수원문화원 · 성남문화원 · 의정부문화원 · 안양문화원 · 부천문화원 · 광명문화원 · 평택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 안산문화원 · 고양문화원 · 과천문화원

· 구리문화원 · 남양주문화원 · 오산문화원 · 시흥문화원 · 군포문화원 · 하남문화원 · 용인문화원 · 파주문화원 · 이천문화원 · 안성문화원 · 김포문화원 · 양주문화원 · 여주문화원 · 화성문화원 · 광주문화원 · 연천문화원 · 포천문화원 · 가평문화원 · 양평문화원 · 의왕문화원 · 강원도 · 강원도지회 · 춘천문화원 · 원주문화원 · 강릉문화원 · 동해문화원 · 태백문화원 · 속초문화원 · 삼척문화원 · 홍천문화원 · 횡성문화원 · 영월문화원 · 평창문화원 · 정선문화원 · 철원문화원 · 화천문화원 · 양구문화원 · 인제문화원 · 고성군문화원 · 양양문화원 ·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 · 청주문화원 · 충주문화원 · 제천문화원 · 청원문화원 · 보은문화원 · 옥천문화원 · 영동문화원 · 진천문화원 · 괴산문화원 · 음성문화원 · 단양문화원 · 증평문화원 ·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 · 천안문화원 · 공주문화원 · 서산문화원 · 논산문화원 · 금산문화원 · 부여문화원 · 서천문화원 · 청양문화원 · 홍성문화원 · 예산문화원 · 태안문화원 · 당진문화원 · 대전문화원 · 온양문화원 · 조치원문화원 · 아우내문화원 · 성환문화원 ·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 · 전주문화원 · 군산문화원 · 익산문화원 · 정읍문화원 · 남원문화원 · 김제문화원 · 완주문화원 · 진

안문화원 · 무주문화원 · 장수문화원 · 임실문화원 · 순창문화원 · 고창문화원 · 부안문화원 ·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 · 목포문화원 · 여수시문화원 · 순천문화원 · 나주문화원 · 광양문화원 · 담양문화원 · 곡성문화원 · 구례문화원 · 고흥문화원 · 보성문화원 · 화순문화원 · 장흥문화원 · 강진문화원 · 해남문화원 · 영암문화원 · 무안문화원 · 함평문화원 · 영광문화원 · 장성문화원 · 완도문화원 · 진도문화원 · 신안문화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 · 포항문화원 · 경주문화원 · 김천문화원 · 안동문화원 · 구미문화원 · 영주문화원 · 영천문화원 · 상주문화원 · 문경문화원 · 경산문화원 · 군위문화원 · 의성문화원 · 청송문화원 · 영양문화원 · 영덕문화원 · 청도문화원 · 고령문화원 · 성주문화원 · 칠곡문화원 · 예천문화원 · 봉화문화원 · 울진문화원 · 울릉문화원 ·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 · 창원문화원 · 마산문화원 · 진주문화원 · 진해문화원 · 통영문화원 · 사천문화원 · 김해문화원 · 밀양문화원 · 거제문화원 · 양산문화원 · 의령문화원 · 함안문화원 · 창녕문화원 · 고성문화원 · 남해문화원 · 하동문화원 · 산청문화원 · 함양문화원 · 거창문화원 · 함천문화원 · 제주도 · 제주도지회 · 제주문화원 · 서귀포문화원

제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논문(사료) 공모

■ 취지

전국문화원연합회는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전국 각지의 향토사료를 발굴,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향토사가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제 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논문(사료)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공모요강

- 응모부문 (1)논문부문 (2)사료부문
※ 사료부문은 논문형식을 취하지 않은 단순 보고서도 무방함
- 연구분야 지역의 역사, 민속 등 향토사 전반
-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 응모기간 2001. 5. 1 ~ 10. 15(마감일 소인유효)
- 발 표 2001년 11월 초 개별통보 및 본회 홈페이지(www.kccf.or.kr) 발표
- 시상식 및 발표회 2001년 12월(일정 및 장소 추후 통보)

■ 응모자격

- 논문부문
- 일반인, 향토사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학위자 및 박사학위과정자 포함)
문화원(시·도지회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문화원 소속 향토사가
- 사료부문
- 문화원(시·도지회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문화원소속 향토사가
- 기타
- 박사학위취득자(명예박사포함) 및 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겸임, 객원교수 등 포함)은 응모할 수 없음
- 기 대상수상자는 수상 연도부터 3년 동안 응모할 수 없음
-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결격자 수상시 추후 수상자격 박탈 및 상금 회수

■ 전시상내역

1. 논문부문 대상1편 300만원, 최우수상1편 200만원, 우수상2편 각150만원, 장려상4편 각100만원
2. 사료부문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2편 각100만원, 장려상3편 각 50만원

■ 응모요령

- 추천서 모든 응모작은 해당지역 문화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함.
※추천서는 지방문화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첨부물 응모시 이력서 및 논문(사료)을 입력한 디스켓을 필히 첨부해야 함
- 응모수량 개인별 응모 수량은 제한 없으며, 논문의 각주표기는 일반적 용례를 따를 것

■ 유의사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사료)은 공모할 수 없으며, 입상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낙선으로 처리함
- 국내외에 이미 단행본으로 발간했거나 기타 간행물에 게재했을 경우
 - 다른 사람의 논문(사료)을 모방했거나,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 이력서에 학위를 허위 기재 했을 경우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1202 전국문화원연합회
- 전화 (02)704-2311 팩스 : (02)704-2377
E-mail : mcchun@kccf.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담당자에게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http://www.kccf.or.kr>

전국문화원연합회